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 학위논문

중학교 자유학년제 효과 분석

- 자유학기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김 리 나

중학교 자유학년제 효과 분석

- 자유학기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동 욱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김 리 나

김리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신정철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엄문영 _____ (인)

위 원 _____ 정동욱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자유학기제와 비교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시행 기간에 대해 변동이 극심해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특히 부수효과 모형에 입각하여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함께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분석을 위해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데이터를 통상자승회귀분석법(Ordinary Least Square)과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와 비교했을 때 자유학년제가 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히 시행 기간을 두 학기로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둘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를 모두 유의하게 저하시켰다. 자유학년제 시행 이후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유학년제 정책 집행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유의하게 높였다. 자유학년제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자유학년제가 의도했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적극적인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유학년제에 대한 교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해야 한다. 자유학년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기보다 예산 부족, 체험처 중복,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 및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필평가가 시행되지 않는 대신 새로운 평가방법인 과정 중심 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과정 중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학습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해 증거 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을 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년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연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채택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경향점수매칭, 진로성숙도, 창의성, 학업성취도, 사교육

학 번 : 2021-21932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문제 ····· 3

제 3 절 연구의 의의 ····· 5

제 4 절 연구의 한계 ·····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 8

제 1 절 정책평가 ····· 8

1. 정책평가 개념 ····· 8

2. 정책평가 모형 ····· 9

3. 목표달성 모형 및 부수효과 모형 ····· 11

제 2 절 자유학기제 ····· 12

1. 자유학기제 개념 ····· 12

2. 자유학기제 배경 ····· 15

3. 자유학기제 시행과정 ····· 16

제 3 절 자유학년제 ····· 17

1. 자유학년제 개념 ····· 17

2. 자유학년제 배경 ····· 19

3. 자유학년제 시행과정 ····· 20

4.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논쟁 ····· 21

제 4 절 선행연구 분석 ····· 26

1. 자유학기(년)제 도입 및 정착 방안 ····· 26

2. 자유학기(년)제 운영 방안 ····· 27

3. 자유학기(년)제가 의도한 효과 분석 ····· 29

4. 자유학기(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 분석 ····· 34

5. 연계학기 및 자유학년제 확대 논의 ····· 38

제 3 장 연구 방법 ····· 40
제 1 절 분석 모형 ····· 40
제 2 절 분석 대상 ····· 41
제 3 절 분석 변수 ····· 41
제 4 절 분석 방법 ····· 49
1. 통상자승회귀분석법 ····· 49
2. 경향점수매칭법 ····· 49

제 4 장 연구 결과 ····· 53
제 1 절 기술통계 ····· 53
제 2 절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 ····· 58
1.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 58
2.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 60
제 3 절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 ····· 61
1.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 61
2.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효과 ····· 64

제 5 장 논의 ····· 66
제 1 절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비교 논의 ····· 66
제 2 절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 논의 ····· 68
제 3 절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 논의 ····· 70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71

참고문헌 ····· 76
Abstract ····· 86

표 목 차

<표 2-1>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 ····· 17
<표 2-2> 자유학년제 시행 과정 ····· 21
<표 2-3>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한 쟁점 ····· 24
<표 2-4> 자유학기제로 회귀 과정 ····· 26
<표 2-5> 의도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 31
<표 2-6>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 36
<표 3-1> 진로성숙도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 43
<표 3-2> 창의성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 44
<표 3-3> 학업성취도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 46
<표 3-4> 사교육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 47
<표 3-5> 경향점수매칭을 위한 공변인 ····· 51
<표 3-6> 경향점수매칭 전후 집단 간 평균 차이 ····· 52
<표 4-1> 주요 변수 기술통계 ····· 54
<표 4-2> 경향점수매칭 이후 주요 변수 기술통계 ····· 56
<표 4-3>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 59
<표 4-4>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 60
<표 4-5>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 63
<표 4-6>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 ····· 65

그 림 목 차

[그림 2-1] 정책평가 모형 ····· 10
[그림 2-2]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 ····· 14
[그림 2-3] 자유학년 활동 운영 방식 예시 ····· 18
[그림 3-1] 연구 모형 ····· 40
[그림 3-2] 집단 간 경향점수 공통영역 분포 ····· 5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유학기제는 지식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 없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이다(교육부, 2015).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에, 장래희망이 부재하고,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교육부, 2013). 따라서 자유학기제는 교과 수업의 혁신과 학생 희망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의 운영이라는 변화를 도모한다(교육부, 2015).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점차 확대되어 2016년에 전면 시행되었다.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가 다수 있었으며,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영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계·확장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신철균, 박민정, 2015). 또한 학생들이 충분한 진로탐색을 하기에는 1학기라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김아미 외, 2017; 김은영 외, 2016). 운영 기간을 늘릴 경우 보다 풍부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일반학기에 진입하면서 겪는 부적응 문제를 타학기와의 적극적인 연계와 확장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김은영 외, 2016).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긍정적인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진로탐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로 확장하여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7). 서울, 경기, 강원 등에서 2017학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에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첫째, 진로체험 및 활동형 프로그램들의 실효성 문제다. 진로체험처 확보 및 전문강사 초빙이 어렵다보니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김은영 외, 2016; 에듀동아, 2018.02.23.). 둘째,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질 저하 문제다. 총체적인 변화로 인해 교사들은 혼란을 호소하였으며, 자유학년제 업무의 부담이 커지면서 수업이나 학생 지도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김아미 외, 2017; 에듀동아, 2018.02.23.). 셋째,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 및 사교육 의존 문제다(중앙신문, 2022.12.07.; KBS, 2017.11.06.). 1년 동안 교과시수가 감축되고 지필평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저하되었고,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시·도교육청, 학교 재량으로 자유학년제가 아닌 자유학기제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더 나아가 교육부(2021)는 2025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중학교 1학년 1학기에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되,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연계학기를 실시하여 3학년 때 자유학기 활동을 이어서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종합하면,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게 되었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유학기제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3학년 2학기에 연계학기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자유학년제의 틀을 온전히 벗어버린 것은 아닌 상황이다. 이처럼 자유학기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면서 학교 현장 및 학생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SBS, 2021.10.06.).

1학기 혹은 1년을 시행할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

한 연구는 부재하다. 현재까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도입 및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의도한 효과에 대한 연구,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연구, 연계학기 및 자유학년제 확대 논의에 대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학년제 확대 논의나 자유학년제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구분 짓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자유학기(년)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을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변동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자유학기제와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책평가 모형 중 부수효과 모형에 근거하여,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와 함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영향을 지속·확장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표를 계승한다. 따라서 자유학년제가 학생의 진로성숙도, 창의성 함양과 같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유학년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학력 저하 및 사교육 의존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도 커졌다. 따라서 자유학년제 시행 이후 학업성취도, 사교육 참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와 함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근 화두인 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자유학기제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동이 심한 자유학년제 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영향을 지속·확장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표를 계승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와 마찬가지로 자유학년제의 정책 목적은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교육부, 2015).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목적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꿈과 끼 찾기와 창의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자유학년제 시행이 자유학기제 시행에 비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상자승회귀분석법 및 경향점수매칭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 2]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교육부, 2015). 이처럼 1년 동안 지필평가 없는 체험 중심의 교육이 시행되면서,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가장 대표적인 우려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 문제다(김은영 외, 2016; 중앙신문, 2022.12.07.; KBS, 2017.11.06.).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 해방감을 느끼는 한편, 중학교 1학년을 '노는 학년'으로 인식하여 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김은영 외, 2016; 이투데이, 2020.02.26.; KBS, 2017.11.06.).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에 대한 우려 중 특히 많이 지적되는 학업성취도 저하 문제 및 사교육 의존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자유학년제 시행이 자유학기제 시행에 비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상자승회귀분석법 및 경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가 학생의 진로성숙도, 창의성, 학업성취도 및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자유학기제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 시행을 둘러싸고 변동이 극심한 상황이다.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자유학년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지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유학기제로 돌아가는 움직임도 발생하고 있다. 적절한 시행기간을 둘러싸고 논쟁이 첨예한 가운데,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년)제 참여 학생만을 분석하거나, 자유학기(년)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책 설계 및 집행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둘째, 자유학년제에 대한 인식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 상당수의 연구와 언론보도는 자유학년제에 대해 교사, 학생, 혹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혹은 면담 수행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조사는 연구 대상이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구축된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과 자유학년제 경험 학생에 대해 경향점수매칭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실증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인과적인 효과 규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화두인 정책에 대해 보다 엄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셋째, 정책이 의도한 효과와 함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영향을 지속·확장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표를 계승한다. 따라서 자유학년제가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의 꿈과 끼 함양, 창의성 등의 핵심역량 함양과 같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자유학년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학력 저하 및 사교육 의존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영향에 대한 염려도 커졌다.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의도한 효과 혹은 의도하지 않은 효과 중 한 측면을 집중하여 분석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의 의도한 효과와 함께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분석하여, 해당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데이터 활용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BELS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자유학기(년)제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동시대에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을 구분 가능한 것은 현시점에서 BELS가 유일하였다. BELS는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와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를 구분하였고, 데이터를 표집한 2019년에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과 자유학년제 경험 학생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산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학생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로 진로성숙도와 창의성에

대한 BELS 문항을 활용하였는데, 학생들의 인식 문항이라는 점에 한계가 존재한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진로성숙도와 창의성에 대한 응답값이기에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육종단연구 데이터가 학생 역량을 인식 문항을 통해 수치화하고 있어 사용 가능한 대안이 풍부하지 않으며, 본 연구의 관심사인 꿈과 끼 및 창의성 함양 정도를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둘째, 자유학년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커니즘 분석의 문제다.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가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를 자유학기제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지만, 어떤 매커니즘에 의한 결과인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자유학년제는 다양한 기제를 통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생 특성, 가정 배경, 학교 특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자유학년제는 다른 교육 주체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년제가 교사의 업무 및 학생 지도에 변화를 야기하여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주체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분석한다면, 자유학년제 효과의 매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책이 학생에게 미치는 일반적인 효과 규명에 초점이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자유학년제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매커니즘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향점수매칭 및 횡단면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선택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경향점수매칭 분석을 수행하였지만, 경향점수매칭의 경우 관찰된 변수(observed variable)만을 통제해줄 수 있다. 즉, 관찰되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서는 매칭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보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한 선택편의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유학년제에 대한 효과를 횡단면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현재 구축된 데이터로는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종단분석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때의 자유학기(년)제 경험에 의해 중

학교 2학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횡단면 분석을 시행하였다.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선택편의를 제거하고 엄밀성을 도모하였지만, 종단분석만큼 엄밀한 인과효과를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 자유학기(년)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종단연구 데이터가 풍부하게 구축되면 다양한 연구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책평가

1. 정책평가 개념

일반적으로 평가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의 장점, 가치 등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이다(Scriven, 1991).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는 정책과 평가라는 두 개념을 합한 것으로 정책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지칭하며, 정부가 실시한 정책이나 프로그램[1)]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호, 2016; 정주택 외, 2007). 결국 정책평가는 정책의 기획 및 집행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기에, 정밀한 사정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 방법을 응용하게 된다(Suchman, 1967: 노화준, 2015에서 재인용).

좁은 의미에서 정책평가는 정책분석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정책분석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조망적 분석(anticipatory analysis)인 반면에, 정책평가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1) 정책은 일반적으로 목적과 그것을 달성할 수단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책이 정책 목적의 달성 수단인 프로그램이나 정부의 간여(intervention)도 포괄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 역시도 정책평가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노화준, 2015).

난 후 정책 집행이나 결과를 살펴보는 회고적 검토(retrospective examination)를 의미하기 때문이다(Poland, 1974). 즉, 정책분석의 초점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효과의 추정이나 예측에 있는 데 반해, 정책평가의 초점은 실제로 발생하게 된 효과에 있는 것이다(노화준, 2015).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분석과 평가를 모두 합하여 정책평가라고 칭한다. 정책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정책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전 사정을 포괄적으로 정책평가라고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정책평가의 관점을 따르고자 한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회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정책평가 또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김종호, 2016). 정책평가를 통해 정부개입 활동의 장점, 유용성, 가치 등을 정밀하게 사정하여, 미래의 정책 설계를 위해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책평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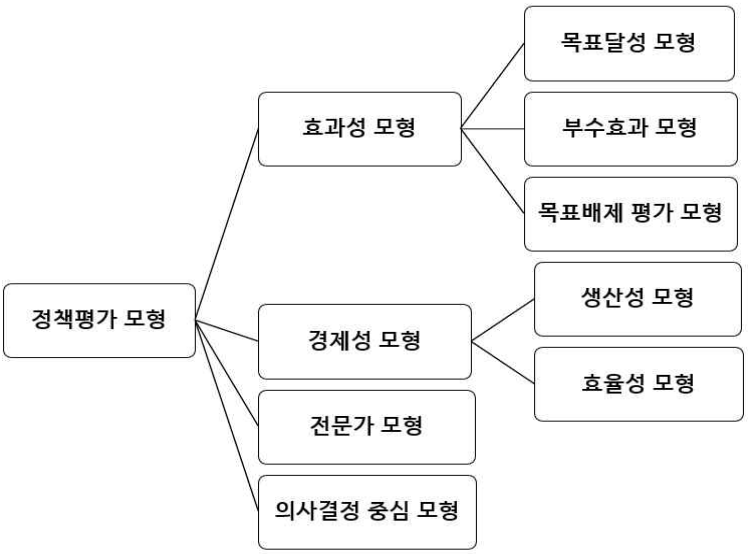
정책평가 방법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Vedung(1997/2009)에 따른 정책평가 모형은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책평가 모형은 크게 효과성 모형, 경제성 모형, 전문가 모형, 의사결정 중심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Vedung, 1997/2009). 우선, 효과성(effectiveness) 모형은 정부개입의 실제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효과성 모형에는 고전적인 목표달성 모형, 부수효과 모형, 목표배제 평가 모형 등의 하위 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경제성 모형은 결과와 함께 비용에도 관심을 두는 모형이다. 효과성 모형은 비용을 살펴보지 않고 정부개입 활동의 결과에만 주목하였다면, 경제성 모형은 비용과 효과성을 통합하여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목표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비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경제성 모형에는 생산성 모형, 효율성(efficiency) 모형 등의 하위 모형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 모형은 평가 대상이나 평가 절차가 아닌 평가 주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와 질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모형이다. 공공활동 영역 중 목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건축가, 법률가, 공학자 등의 전문가에게 평가의 기준 및 표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전문가 모형에 해당한다.

의사결정 중심 모형은 정책의 목표나 결과보다는 의사결정에 대한 도움 정도에 집중하는 모형이다. 이에 따르면 평가자는 목표에 대한 정보가 아닌, 앞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지며 누가 그 의사결정을 내릴지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Guaba & Lincoln, 1981). 즉, 정책평가는 제한된 시간 내에 앞으로의 의사결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판단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정책평가 모형은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하나의 정책평가 모형이 적합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여러 모형이 서로 경합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Vedung, 1997/2009). 따라서 각 정책평가 모형의 특징과 강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여러 정책평가 모형 중 효과성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부수효과 모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출처: Vedung(1997/2009). 정책평가개론에서 재구성.

[그림 2-1] 정책평가 모형

3. 목표달성 모형 및 부수효과 모형

정책평가의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로 목표달성 모형(goal attainment evaluation)을 떠올릴 수 있다. 목표달성 모형은 효과성 모형의 하위 모형으로, 사전에 설정된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시행 이후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파악하고, 해당 정책이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방법이다(Vedung, 1997/2009). 목표달성 모형은 정책의 목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유일한 평가지표로 삼는다. 평가자는 해당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된다. 결국 정책이 의도한 효과에 대한 달성 정도가 정책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House, 2010).

목표달성 모형은 민주주의적 측면(democratic argument) 및 연구적 측면(research argument)에서 중요한 강점을 지닌다(Vedung, 1997/2009). 먼저 민주주의적 측면에서, 정책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는 것이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정책 목표가 설정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결국 정책 목표는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닌다. 연구적 측면에서, 목표달성 모형은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정책 목표는 정책 계획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제시된다. 따라서 정책 목표에 의거하여 정책을 평가하면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연구의 객관성을 일정 부분 담보해준다.

이와 같은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 모형에 대해 여러 비판이 존재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은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책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마련이다(Vedung, 1997/2009). 오히려 정책이 의도한 효과보다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Meyers, 1981). 사전에 결정된 정책의 목표달성 여부에만 집중한다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 및 부작용을 간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평가해야 한다는 부수효과 모형(side-effects evaluation)이 등장하였다. 부수효과 모형은 사전에 의도한

중심효과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전제한다(Vedung, 1997/2009). 즉, 정책의 목표를 기준으로 의도한 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함께 분석하는 모형이다. 이때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효과는 부정적일수도 있으며 긍정적일 수도 있다. 평가자는 정책이 의도한 효과와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2]. 이처럼 정책 목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효과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부수효과 모형은 목표달성 모형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다(Vedung, 1997/2009). 따라서 본 연구는 부수효과 모형에 근거하여 자유학년제의 의도한 효과와 함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제 2 절 자유학기제

1. 자유학기제 개념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이다(교육부, 2015).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여 진로를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꿈과 끼를 찾고,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함이다(교육부, 2015). 교육부(2015)에서 제시하는 자유학기제의 추진 방향은 [그림 2-2]와 같다. 이를 위해 교과 수업의 혁신과 학생 희망에 기반한 자유학기 활동 운영이라는 변화를 도모한다(교육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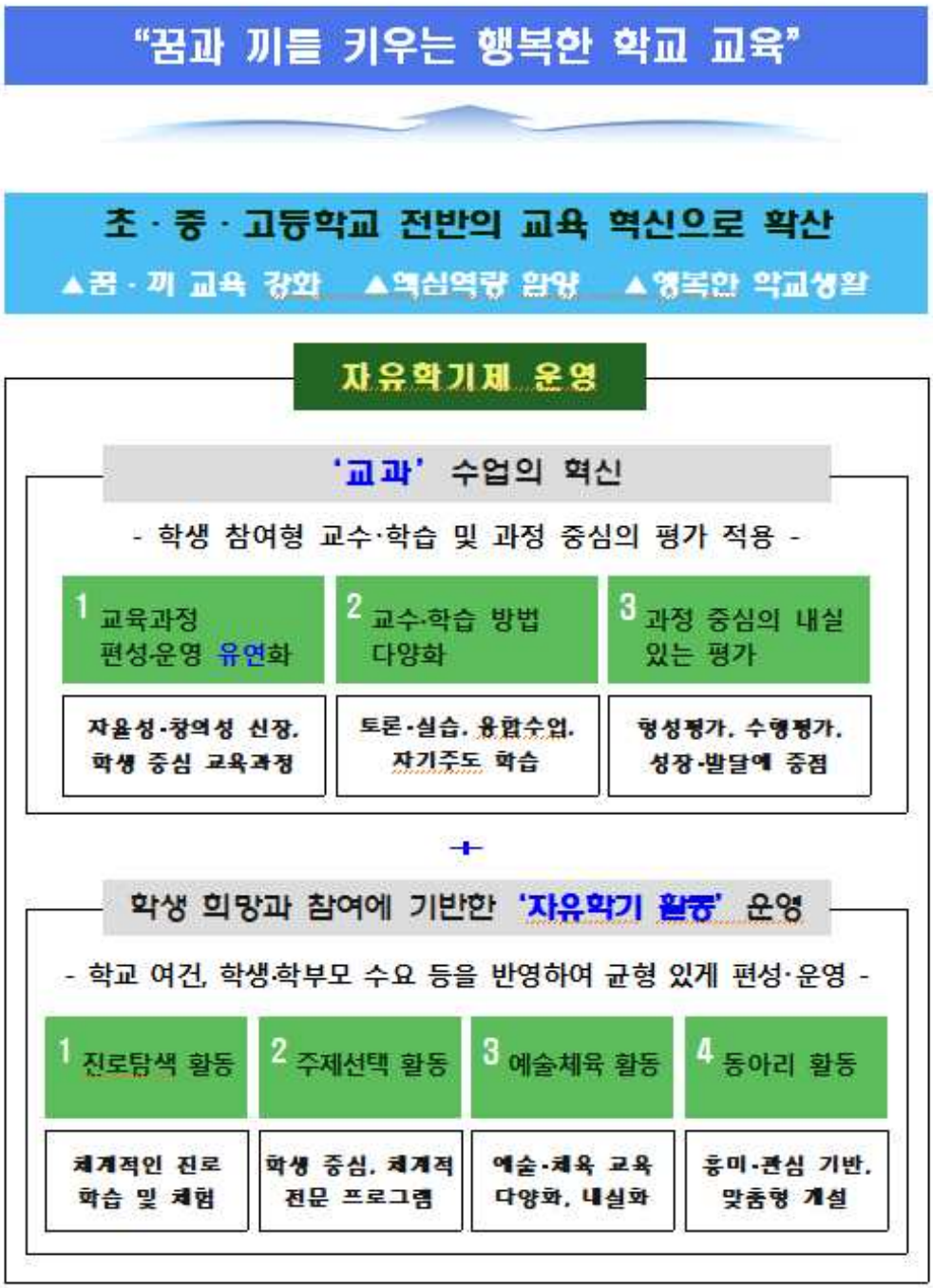
교과 수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 및 운영의 유연

---

2)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부정적인 부수효과는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부수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책일지라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의도한 효과가 미비한 것에 반해 부정적인 부수효과만 강하게 확인된다면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Vedung, 1997/2009).

화를 장려한다. 이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융합 수업이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한다. 토의·토론, 실험·실습,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등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셋째,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시행한다. 중간·기말고사 등의 지필식 총괄평가가 아닌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의 성취 수준, 참여도 및 태도, 자유학기 활동 내역 등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크게 구성된다. 진로탐색 활동은 진로검사, 초청 강연, 현장체험 활동, 직업탐방 등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진로교육이다. 주제선택 활동은 학생의 흥미, 관심사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사례 중심의 활동으로 실시된다. 예술·체육 활동은 연극, 뮤지컬, 스포츠 등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이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경험하여 소질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 자치 활동의 활성화 및 특기·적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학기 활동은 연간 170시간 이상 편성해야 하며, 주로 오후 운영이 권장된다. 학교의 목표와 여건을 고려하여 각 활동을 균형 있게 운영해야 한다.



출처: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그림 2-2]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

2. 자유학기제 배경

자유학기제는 여러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등장하였다. 우선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핵심역량 함양을 강조하는 교육 혁신이 영향을 미쳤다(교육부, 2015). OECD는 DeSeCo 프로젝트(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를 통해 협동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21세기 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제시하며,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육은 핵심역량 함양보다는 대학입시 등의 경쟁에서 선점하는 것이 우선시되었다(김민채, 김영환, 2019). 국제적 교육 혁신의 흐름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2009년에 창의적 체험활동, 2012년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도입해보았지만 효과는 미미하였다.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언·수·과)는 세계 최고(1~2위) 수준인 반면,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장래희망이 없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도 상당히 낮은 편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미비했던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 2013). 따라서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자유학기제가 제시되었다(교육부, 2015). 결국 기존의 지식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다(이상은, 2017; 조현영, 손민호, 2017).

더불어 여러 선진국에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추세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교육부, 2013, 2015).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덴마크 애프터스쿨, 영국의 갭이어(Gap Year), 스웨덴 진로체험학습, 일본의 직장체험활동 등의 사례가 있다(교육부, 2013, 2015; 김나라 외, 2013; 김나라, 최지원, 2014).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극심한 성적 경쟁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 이전의 전환기 1년 동안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김나라, 최지원, 2014; 김진숙, 2013).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은 자유학교에 근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학습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여유와 성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김나라, 최지원, 2014).

영국의 갭이어(Gap Year)는 중등교육 졸업과 대학과정 시작 전 사이의 3개월에서 24개월 동안 학생들이 공교육 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진로체험을 하는 기간이다(김나라, 최지원, 2014). 이와 같은 외국의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에서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에도 자유학기제가 도입되게 되었다(교육부, 2013, 2015).

3. 자유학기제 시행과정

자유학기제는 2013년 전국의 42개 연구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시작되었다. 2014년에는 811교(전국 중학교의 25%)에서 시행되었고, 2015년에는 신청 학교 수가 급증하여 2,551교(전국 중학교의 80%)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였다(교육부, 2017). 특히 대구, 광주, 세종, 강원, 경북, 제주의 6개 시도는 2015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였다(교육부, 2015).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어 3,213(전국 중학교의 100%)교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50-4)로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이 선정되어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산에서는 2013년에 연구학교 3교, 정책학교 2교를 시작으로 자유학기제가 시작되었다(부산광역시교육청[3]). 2014년에는 기존 연구학교와 더불어 2교가 추가되었고, 선도학교 2교와 희망학교 33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였다. 2015년에는 연구·선도·희망학교 111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였다. 2016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자유학기제 시행과정은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출처: 부산광역시 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페이지 참조. https://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307001002000에서 2022.12.05. 인출.

<표 2-1> 자유학기제 시행과정

	2013	2014	2015	2016
전국	연구학교 42교 자유학기제 처음 도입	811교(25%) 자유학기제 시행	2,551교(80%) 자유학기제 시행	3,213교(100%)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부산	연구학교 3교, 정책학교 2교 자유학기제 시행	기존 연구학교, 추가 연구학교 2교, 선도학교 2교, 희망학교 33교 자유학기제 시행	연구·선도·희망학교 111교 자유학기제 시행	172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제 3 절 자유학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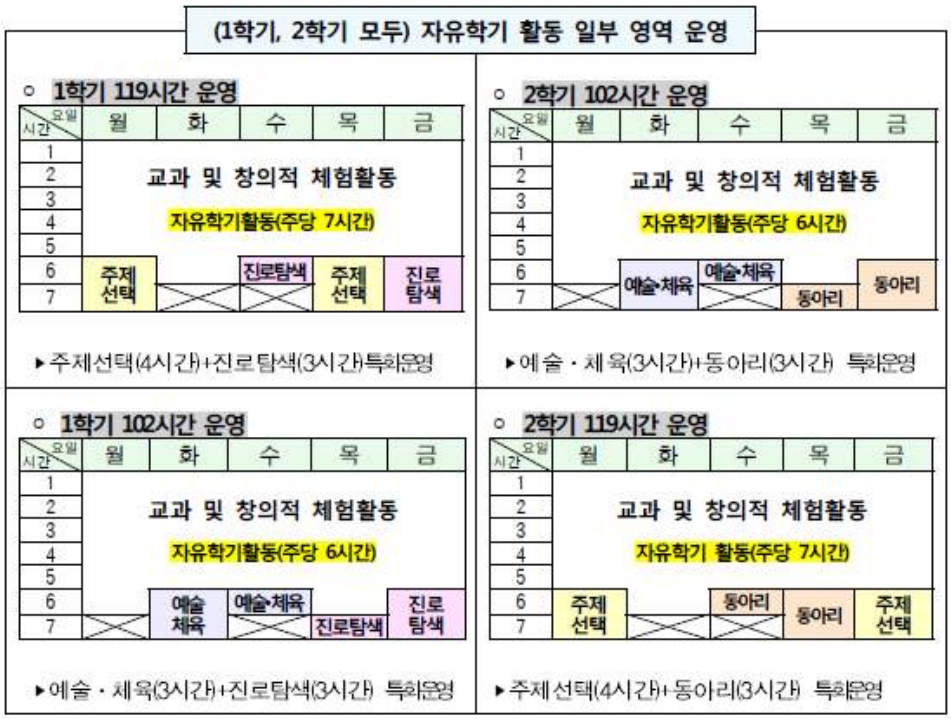
1. 자유학년제 개념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를 확장한 것으로, 중학교 한 학년 동안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제도다(교육부, 2017).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경험이 한 학기로 단절되지 않고 확대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교육부, 2017).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선택하여 운영하였다면,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년 동안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자유학기제와 마찬가지로 자유학년제는 교과 수업의 혁신을 위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서 혁신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교육부, 2017). 즉,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1년 동안은 총괄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교과별 성취도는 미산출하여 이수 여부만 'P'로 입력하게 된다. 개별 학생의 성취수준 및 성장과 발달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기록해야 한다.

또한 자유학년 활동 역시 자유학기제와 마찬가지로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이 된다(교육부, 2017). 자유학기제는 자유학기 활동을 연간 170시간 이상 운영하였다면, 자유학년제는 자유학년 활동을 연간 221시간 이상 편성·운영해야 한다. 4개의 자유학년 활동에 대해 학기별 개설 영역 및 운영시수는 [그림 2-3]과 같이 개별 학교에서 교육목표와 여건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외의 세부사항도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출처: 교육부(2017).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그림 2-3] 자유학년 활동 운영 방식 예시

2. 자유학년제 배경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된 배경에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영향을 주었다(정양순, 이예슬, 박대권, 2018).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자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KEDI(2016: 교육부, 2017에서 재인용)가 시행한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참여와 자기주도 학습 및 학교생활 행복감이 증진되고, 교사는 수업 효능감이 향상되며, 학부모의 학교교육 신뢰도 등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자, 학부모도 자유학기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교사 역시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개선하면서 만족감을 느꼈다는 것이다(최상덕 외, 2014).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연계·확장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었다(신철균 외, 2015; 정양순 외, 2018).

또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일반학기에 진입하였을 때 겪는 어려움을 보고한 연구들도 영향을 주었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일부 학생들은 일반학기에서 새로운 수업과 평가 방식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였고(최상덕 외, 2015a), 자연히 자유학기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요구도 생겼다. 더불어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한 학기라는 기간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다(김은영 외, 2016). 한 학기라는 기간 동안에는 진로탐색을 실속 있게 진행하기 어려워 진로체험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역량을 함양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현장교사, 학부모,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견을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한 긍정적인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진로탐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유학년제로 확장·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7).

3. 자유학년제 시행과정

자유학기제를 확장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자유학기를 일반학기와 연계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교육부(2015)는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의 연계를 강조하였고, 2016년부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연계 운영'을 주제로 하여 연구학교들이 지정되었다(교육부, 2017). 2016년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를 80교 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를 406교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강원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의 시·도 교육청 역시 자유학기제와의 연계계획을 발표하며 자유학기의 변화를 일반학기에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였다(김은영 외, 2016).

2017년 3월부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시범 시행하였고,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발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7). 2018년부터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년제가 도입되면서, 전면 시행하는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을 포함하여 전체 중학교의 약 46%인 약 1,500개교가 이에 참여하였다(교육부, 2017). 이후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자유학년제가 확대 시행되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자유학년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부산의 경우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연계방안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2018년에 부산광역시 중학교의 22.4%인 38교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였고, 2019년에는 141교(82.9%)로 자유학년제 시행학교가 급증하였다. 2020년에는 163교(95.9%)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였고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는 7교에 불과하였다(부산광역시교육청[4]).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광역시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 시행과정은 <표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4) 출처: 부산광역시 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페이지 참조. https://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307001002000에서 2022.12.05. 인출.

<표 2-2> 자유학년제 시행 과정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자유학년제 시범 실시	경기도, 강원도, 광주시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약 1,500교 (약 46%) 희망학교 자유학년제 시행	충청남도, 세종시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대부분 지역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부산	자유학기제 연계방안 연구학교 4교, 시범학교 9교	38교 (22.4%) 자유학년제 시행	141교 (82.9%) 자유학년제 시행	163교 (95.9%) 자유학년제 시행	170교 (100%)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4.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논쟁

종합하면, 자유학년제는 다음의 장점을 기대하면서 시행되었다. 첫째, 1년 단위로 운영이 되어 1학기 운영보다 더욱 풍부하고 질 좋은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김은영 외, 2016). 학교 입장에서는 1학기 단위로 활동을 계획하는 것보다 연초에 1년 단위로 계획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며 효과적이다. 또한 충분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로설계나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 능력 등의 핵심역량 함양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에서 보고된 긍정적인 영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교육부, 2017).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는 연구가 많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일반 학기에서 지속되기는 쉽지 않았다. 기존 학기와 연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를 잠시 거쳤다가는 '예외 학기'로 간주하는 시선도 많아졌다(김은영 외, 2016). 하지만 1년의 기간 동안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교육 성과를 지속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

셋째, 1년 동안 지필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학생들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 탐색에 몰두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4). 즉,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닌 배움 자체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4). 또한 교사들은 지필평가 준비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 철학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도모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4). 이를 통해 교사들은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최상덕 외, 2014; 최상덕 외, 2015a).

이 외에도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전반을 변화시키므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전환기 적응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일반학기에서 겪는 부적응 문제를 완화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은영 외, 2016). 자유학년제를 시행함으로써 자유학기와 타학기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괴리가 작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첫째, 진로체험 및 활동형 프로그램의 실효성 문제다. 자유학기제에서도 진로체험처 확보 및 프로그램의 질 문제가 지적되었는데(김은영 외, 2016), 자유학년제에서는 해당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에듀동아, 2018.02.23.).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진로체험 및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에 따라 체험처의 종류 및 질에 차이가 있어 학생 간 격차 문제도 제기되었다(김은영 외, 2016). 진로교육법이 최근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로체험처 및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여전히 프로그램의 질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최상덕 외, 2015a).

둘째,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문제다. 자유학기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는 자유학기제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김이경, 민수빈, 2015; 신철균 외 2014; 최상덕 외, 2015a). 자유학기제에서도 교육과정, 수업, 평가, 활동의 총체적인 변화로 인해 교사들이 혼란과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최상덕 외, 2014), 자유학년제에서 이상의 문제는 마찬가지다(에듀동아, 2018.02.23.). 특히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가 필요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아 교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김아미 외, 2017; 김은영 외, 2016). 이 외에도 진로체험처 발굴, 학생 인솔 등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들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 수업이나 학생 지도 등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 및 사교육 의존 문제다(김은영 외, 2016; 이투데이, 2020.02.26.; 중앙신문, 2022.12.07.; KBS, 2017.11.06.). 1년 동안 교과시수가 감축되고 지필평가 미실시되면서 학생들이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학업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학생들은 교과의 필수 지식 및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김은영 외, 2016). 자연히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질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학력 저하에 대한 불안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박윤수 2017; 최상덕 외, 2015a). 이러한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둘러싼 쟁점은 다음 <표 2-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3>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한 쟁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장점	• 적당한 기간(1학기) 동안 다양한 활동 및 진로탐색 실시 • 1학기 외 나머지 학기에는 지필평가, 교과 수업을 시행하여 학력저하 방지	• 진로탐색 및 창의체험을 위한 충분한 기간(1년) 제공 • 자유학기제를 통한 긍정적인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 • 1년 동안 지필평가 미시행으로 학생 및 교사의 시험 부담 감소 및 전인적 성장 도모 • 전환학기 및 일반학기 적응용이
단점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한정된(1학기) 기간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 타학기와의 연계 불충분으로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영향 단절 ◆ 자유학기제 이후 일반학기 적응에 고충	◆ 교·강사 부족, 예산문제, 진로체험처 부족 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 1년 동안 지필평가 미시행, 교과 수업 감축으로 인한 기초학력저하 ◆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저하 및 사교육에 의존 현상

이처럼 자유학년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커지자,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재량으로 자유학기제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

어 경상도와 세종시는 2021년부터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축소 운영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대구시를 비롯하여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증가하였다. 부산의 경우 2023년부터 학교희망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유학기제를 희망하는 학교가 138교(80%)에 이른다(부산광역시교육청[5], 부산일보, 2022.11.28.).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부터 다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1). 진로체험 실효성 문제, 학력저하 문제, 사교육 의존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중학교 1학년 1학기에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연계학기를 실시함으로써 3학년 때 자유학기 활동을 하고 진로설계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 창의력 교육의 후퇴”, “자유학년제를 학년별로 그저 분산하는 방침”이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종합하면,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게 되었지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유학기제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자유학기제로의 회귀 과정은 아래 <표 2-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2021)가 발표한 2025년 자유학기제 시행방침은, 1학년에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되 3학년 2학기에 연계학기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자유학년제의 틀을 온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자유학기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동하면서 중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SBS, 2021.10.06.). 이러한 현상은 교육행정의 주요 원리 중, 특히 안정성의 원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극심한 정책 변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1학기 혹은 1년을 시행할지에 대해 혼돈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5) 출처: 부산광역시 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페이지 참조. https://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307001002000에서 2022.12.05. 인출.

<표 2-4> 자유학기제로 회귀 과정

	2021	2022	2023	2025
전국	세종, 경상도 자유학기제로 축소	대구 자유학기제로 축소 시·도교육청, 학교 재량으로 자유학기제 시행하는 경우 증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3학년 2학기는 연계학기)
부산			학교희망에 따라 자유학기 운영 138교(80.7%) 자유학기제 운영 희망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3학년 2학기는 연계학기)

제 4 절 선행연구 분석

1. 자유학기(년)제 도입 및 정착 방안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도입 및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자유학기(년)제가 의도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연계학기 및 자유학년제 확대 논의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자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 및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최상덕 외(2013)는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학교 구성원들의 인

식을 조사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조사하여, 다양한 활동 중심의 수업 운영, 교원 연수 및 학교문화 혁신, 지역사회 교육 자원과의 연계 확대 등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김나라 외(2013)와 김진숙(2013)은 해외의 진로교육 사례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지연(2013)은 진로교육의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2013) 또한 자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유학기제 도입 전 학생, 학부모, 교사, 연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최상덕 외(2015b)는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전면 추진 계획(안), 법적 근거 마련, 예산 마련, 학습생태계 형성 등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를 초창기에 도입한 연구학교를 분석하는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신철균, 박민정(2015)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제의 시사점을 밝히고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언한 바 있다.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2015)은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병환, 임영희, 권민석(2015)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앞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3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운영 시기, 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학급규모에 따른 자유학기제 운영모형을 다양하게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자유학기제를 선구적으로 운영한 학교의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개선하고 타학교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2. 자유학기(년)제 운영 방안

자유학기제는 교과 수업의 혁신과 자유학기(년) 활동 운영이라는 변화를 도모한 정책이다. 따라서 자유학기(년)제 하에서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 및 활동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정영근 외(2015)는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적용

을 위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실행 방안을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정현선, 오은하(2016)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이루어진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평원(2017)은 자유학기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과를 아우르는 표준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유학기(년)제 평가방법을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지은림 외(2014)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평가방안 연구를 주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파악하고 학습발달을 위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평가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특히 평가가 자기주도적 학습, 협력 학습, 체험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연계 체제를 통해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임재일 외(2015)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학생평가 방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형성평가, 정의적 평가, 자기·동료 평가, 수행평가가 자유학기제 평가의 큰 특징임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임종헌, 최원석(2018)은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을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년)제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필평가와는 다른 평가의 혁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자유학기(년)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되며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학기(년) 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한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임종헌(2018)은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 모습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제선택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김민채, 김영환(2019)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다룬 연구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로탐색 활동 프로그램의 빈도가 가장 많았고, 모둠학습,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등을 융합한 교육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학교 교육이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유학기(년) 활동 운영을 위한 도움을 제공해준다.

3. 자유학기(년)제가 의도한 효과 분석

자유학기(년)제가 시행된 이후,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여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와 학생의 진로성숙도, 역량, 학교행복감(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우선, 김위정(2017)은 경기교육종단연구 3차 및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내재적 동기를 미참여 학생들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성숙도, 내재적 동기는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해인, 최인지, 신형진(2016)은 대구광역시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 1교, 동일한 학군에서 유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졌지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은 다른 중학교 1교를 표본으로 자유학기제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진로성숙도를 태도, 능력, 행동 세 가지 영역으로 분석하였는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진로성숙도의 행동 영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회, 김은경, 현길아, 윤두호(2016)는 제주도 내 중학생들 대상으로 자유학기 진로탐색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심재희, 오정아, 조오숙(2017)은 충북지역 자유학기제 시행학교 1교와 자유학기제 미시행학교 2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G지역 중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진로성숙도의 하위유형 중 자기이해, 정보탐색, 합리적 의사결정, 진로지식에 대한 지각, 진로탐색, 준비행동에 대한 지각 등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줌을 밝혔다.

김동심(2017)은 2016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각 1교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잠재평균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은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 사회적 핵심역량의 잠재평균이 증가하였으

나, 인지적·정의적 핵심역량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휘정, 김민석(2018)도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행복도, 학교생활 만족도, 진로성숙도의 변화궤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진로체험 참여 횟수는 진로 포부의 초기값에 영향을 주지만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못 미쳤다. 진로체험 만족도가 학교생활 만족도, 상호협조성, 진로포부, 자기이해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체험 참여 횟수보다는 진로체험 만족도가 학생의 발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진로체험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처치집단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비교집단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박윤수(2017)는 이중차분모형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1학년 학생(처치집단)과 일반학기를 경험한 2학년 학생(비교집단)의 창의성, 사회성, 행복감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의 사회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창의성과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성경 외(2018)는 경기교육종단연구 3~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정책이 의도한 효과(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시험스트레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기 교사 참여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낮았고, 자유학기제 교과시수가 증가할 경우 시험스트레스가 감소함을 밝혔다.

이필남(2020)은 경기교육종단연구 3차~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모형으로 2015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정의적 역량(내재적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미경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종단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기 경험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정의적 역량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효과가 심대하지 않음을 밝혔다. 한편 문찬주, 정동욱(2020)은 2016년, 2017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경험이 중학생의 진로 발달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진로 발달 및 학교생활 특성은 미경험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학 희망고등학교 유

형과 희망 직업의 다양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 경험이 학생의 진로의식수준과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만족도와 진로교육활동 만족도도 높이는 것을 밝혔다.

종합하면, 자유학기(년)제가 학생의 진로성숙도나 역량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유학기(년)제가 진로성숙도나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는 연구(김위정, 2017; 이필남, 2020)도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문찬주, 정동욱, 2020; 심재희 외, 2017; 이인회 외, 2016)도 있었으며, 연구 내에서 종속변수별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도 존재하였다(김동심, 2017; 김해인 외, 2016; 박윤수, 2017; 조성경 외, 2018; 주휘정, 김민석, 2018). 자유학기제와 진로성숙도, 역량, 학교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표 2-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년)제 참여 학생만을 분석하거나, 자유학기(년)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을 비교 분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의 의도한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표 2-5> 의도한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 연구	연구방법		종속변수별 효과		비고
	분석자료	분석방법	진로성숙도	역량, 학교행복감	
김해인 외(2016)	대구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 1교, 비슷한 조건의 미실시 학교 1교	다중회귀분석	진로성숙도 행동(+) 태도(.) 능력(.)		대구에서 유사한 조건의 중학교 2교 비교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
이인회 외(2016)	제주도 내 중학생들	사전·사후 검사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유학기 진로탐색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김동심 (2017)	2016년 자유학기 운영학교 2교 편의 표집	사전·사후 검사, 잠재평균분석	진로성숙도 (+)	정의적 역량(.) 인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 (+) 학교만족도 (+)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였으나, 표본의 대표성 문제
김위정 (2017)	GEPS 초등학교 패널 3-4차년도	이중차분모형(DID)	진로성숙도 (.)	내재적 동기 (.)	
박윤수 (2017)	대구광역시 4개 중학교 1학년(처치집단, 자유학기제 시행), 2학년(통제집단, 자유학기제 미시행) 학생 설문조사	이중차분모형(DID)		창의성(.) 사회성(+) 행복감(.)	처치가 없었을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 양상이 유사할 것이라는 강한 가정
심재희 외(2017)	충북지역 자유학기 시행학교 1교, 미시행학교 2교	차이검증 (F-test)	진로성숙도 (+) 여러 하위요인에서 자유학기 시행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		차이검증 방법으로 변수통제 부재, 인과효과로 해석 불가

주휘정, 김민석 (2018)	전국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100교 추출, 각 학교에서 1학급씩 조사	잠재성장모형	진로체험활동 참여 횟수→ 변화율(.) 진로체험활동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진로포부, 자기이해 초기치와 변화율(+)		비교집단 부재
조성경 외(2018)	GEPS 3-5차년도, 학교알리미, 진로체험처 정보공개 청구 자료	T검정,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자유학기 운영교사 비율→ 진로성숙도(-)	진로탐색 시수→ 자기효능감(-) 자유학기 운영강사 비율→ 시험스트레스(+) 자유학기 교과시수→ 시험스트레스(-)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특성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문찬주, 정동욱 (2020)	2016, 2017 진로교육 현황조사 자료	경향점수 매칭을 활용한 회귀분석	진로인식수준(+) 진로개발역량(+)	학교생활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성과 보고
이필남 (2020)	GEPS 3-6차년도	이중차분모형(DID)	진로성숙도(.)	정의적 역량(학습동기, 자기효능감)(.)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 모두 미미

4. 자유학기(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 분석

한편 자유학기(년)제가 시행되면서 학업성취도 저하 및 사교육 의존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따라서 상당수의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학업성취도,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김위정(2017)은 경기교육종단연구 3, 4차년도 자료를 이중차분 모형으로 분석하여 자유학기 시행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다소 저하되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를 나누어서 분석해본 결과, 일반학교는 자유학기제 시행 시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하락하였지만 혁신학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밝혔다. 사교육비는 자유학기 시행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자유학기제로 인한 학력 저하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사교육비도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김양분(2016)은 한국교육종단연구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가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들이 미참여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고 사교육비는 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였지만 횡단자료 회귀분석에 그쳤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인과효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1학년 학기 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2~3개월 짧은 기간 동안 자유학기제의 단기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박윤수(2017)는 8년간의 사교육비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이중차분 모형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가 고소득층 학생의 사교육 투자는 높였지만, 중·저소득층의 사교육 투자는 감소시키거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소득수준별로 상반된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평균적으로는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함을 밝혔다.

조성경 외(2018)는 경기교육종단연구 3~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학업성취

도, 사교육시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시수 감축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저하되고 사교육 의존도가 증대되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국어와 수학 성취도가 향상되었고 영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교육 시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의 양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수업방식의 질적인 변화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였다. 김양분, 남궁지영, 박경호(2019)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의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 및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자유학기제 참여 여부 따른 학업성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에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2013년 대비 2015년, 2016년에 국어, 영어 성취도가 더 높게 향상되었다. 수학의 경우에는 2013년 대비 2015년의 성취도가 더 높았고, 2016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찬주, 정설미, 이영선, 정동욱(2020)은 시·도별 자유학기제 시행비율이 학교 수준 학업성취도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도별 자유학기제 시행비율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학기제 시행비율이 높아지면서,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필남(2020)은 경기교육종단연구 3~6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5년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사교육 시간이 미경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종단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국어 학업성취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와 사교육시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자유학기(년)제와 학업성취도, 사교육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표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자유학기(년)제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유학기(년)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지 않다고 보고하는 연구(문찬주 외, 2020; 이필남, 2020)도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김위정, 2017; 이필남, 2020)도 있었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김양분, 2016; 김양분 외, 2019; 조성경 외, 2018)도 있었다. 이 중에는 과목이나 학교

유형별로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하였다(김양분, 2016; 김위정, 2017; 조성경 외, 2018). 한편, 자유학기(년)제가 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선행연구가 유의한 영향력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수준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가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높이지만, 중위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낮추고,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끔 한다는 박윤수(2017)의 연구 결과를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도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유학기(년)제 참여 학생만을 분석하거나, 자유학기(년)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을 비교 분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부재하다.

<표 2-6>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 연구	연구방법		종속변수별 효과		비고
	분석자료	분석방법	학업성취도	사교육	
김양분 (2016)	KELS 2013 1-3차년도	T검정,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국어(.) 수학(+) 영어(+)	(.)	2~3개월 짧은 기간 동안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결과로, 인과효과 추정 불가
김위정 (2017)	GEPS 초등학교 패널 3, 4차년도	이중차분모형(DID)	국어, 영어, 수학(-)	(.)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구분하여 분석
박윤수 (2017)	대구광역시 4개 중학교 1학년(처치집단, 자유학기제 시행), 2학년	이중차분모형(DID)		전체 평균(.)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분석

	(통제집단, 자유학기제 미시행) 학생 설문조사				
조성경 외(2018)	GEPS 3-5차년도, 학교알리미, 진로체험처 정보공개 청구 자료	T검정,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	교과목별 시수 감축과 국어, 수학 학업성취도(+) 영어교과시수와 영어학업성취도(.)	교과시수와 사교육 시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특성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
김양분 외(2019)	KELS 2013 1-4차년도	고정효과 모형 적용한 이중차분법(DID)	2015년 국어(+) 2016년 국어(+) 2015년 영어(+) 2016년 영어(+) 2015년 수학(+) 2016년 수학(.)		
문찬주 외(2020)	EDSS 2011~2018년	이원고정 효과모형	기초학력 미달 학생비율(.) 학업성취도(.)		시·도별 자유학기제 시행비율이 학교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필남(2020)	GEPS 3-6차년도	이중차분 모형(DID)	15년 국어(-) 영어(.) 수학(.)	(.)	자유학기제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확인

			16년, 17년 국어, 영어, 수학(.)		

5. 연계학기 및 자유학년제 확대 논의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경험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 경험이 한 학기에 그치지 않아야 함을 피력하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김은영 외(2016)는 자유학기에 대한 불안이 자유학기를 기존 학기와는 별도로 마련된 예외 학기로 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쟁점은 타학기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학기제를 초·중·고 교육 전반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모형(안)을 구안하였는데, 그중 하나의 안으로 자유학년 모형을 제안하였다. 자유학년 모형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다른 중등교육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습자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가 고려되는 분위기 조성하고, 학교운영의 측면에서도 학년 단위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 한 학기 단위보다 운영이 수월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신철균, 황은희, 송경오(2016) 역시 자유학기제 경험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자유학기제의 성과가 일반학기까지 연계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고 연계가 잘 되는 학교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가 일반학기까지 연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사 간의 동료성, 교육과정의 통합성,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성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신철균(2018)은 자유학기제가 단절이 아닌 연속성과 확장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른 일반학기와 연계되기 위한 원리를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탐색하였다. 그 외에도 김나라, 최지원(2014)은 해외 교육 개혁 사례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제 교육의 연속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담당 교사뿐 아니라 타학년의 교사들도 자유학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 및 확장의 중요

성을 지적하고 있다. 자유학기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김나라, 최지원, 2014; 김은영 외, 2016), 자유학기와 타학기(년)를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연구(김은영 외, 2016; 신철균, 2018), 그리고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연계에 성공한 사례(신철균 외, 2016)를 소개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그 외에도 자유학기에서 자유학년으로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정양순, 이예슬, 박대권, 2018)도 있다. 하지만 자유학년제 시행이 자유학기제에 비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부재하다.

결국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도입 및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의도한 효과에 대한 연구,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연구, 연계학기 및 자유학년제 확대 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학년제 확대 논의나 자유학년제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구분 짓지 않는 선행연구가 대다수다. 특히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자유학기(년)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을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변동이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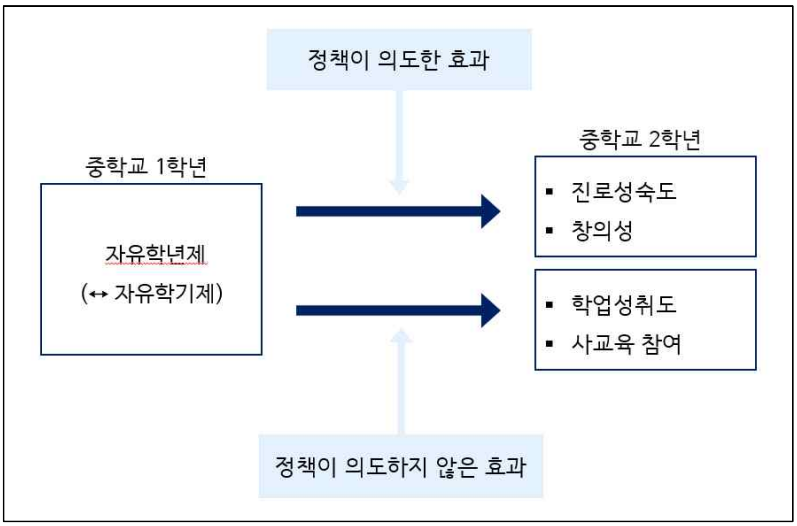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자유학기제와 비교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 목표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부수효과 모형(Vedung, 1997/2009)에 기반한다. 정책은 분명한 목표를 위해 시행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수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Meyers, 1981), 목표에 대한 고려를 하되 종합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와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의 가설을 세우고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첫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및 창의성 함양에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고 사교육 참여율을 높일 것이다.



[그림 3-1] 연구 모형

제 2 절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부산교육종단연구(Bus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BEL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BELS는 2016년에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로 표본 패널을 구성하여 이들과 연계된 부모, 교사, 학교까지 모두 추적 조사한 종단자료다. BELS는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와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를 구분하여 표집하였으며,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사인 자유학년제 경험 여부를 처치로 하여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BELS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3-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문제 확인을 위한 주된 분석자료는 5차년도(2020년) 중학교 2학년 데이터다. 그런데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하므로, 자유학년제 경험 여부는 4차년도(2019년) 중학교 1학년 데이터에서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2019년에 자유학기제 경험 또는 자유학년제 경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들의 사전 학업성취도는 3차년도(2018년) 초등학교 6학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위한 공변인은 4차년도(2019년) 학교 데이터에서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는 결측을 제외(listwise deletion)하고 2020년 중학교 2학년 2,385명(자유학기제 경험 487명, 자유학년제 경험 1,898명)을 활용하였고, 경향점수 매칭 이후에는 중학교 2학년 914명(자유학기제 경험 457명, 자유학년제 경험 457명)을 활용하였다.

제 3 절 분석 변수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에게 미치는 의도한 효과 및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종속변수는 진로

성숙도, 창의성과 학업성취도, 사교육 참여로 두었다. 진로성숙도는 진로에 대한 계획,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 등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 7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창의성은 독창적 사고, 융합적 사고 등에 대한 5점 척도 5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학업성취도는 BELS에서 시행한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도 검사의 수직척도 점수를 사용하였고, 사교육 참여[6]는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을 경우 '1'로, 받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자유학년제 경험 여부는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경험하였으면 '1'로,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였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2019년도에 부산의 모든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혹은 자유학기제를 선택해서 시행해야 했으므로,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를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 다음으로 자유학년제 경험 여부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개인특성, 가정배경 및 학교요인에 대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우선 진로성숙도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가정배경, 학교요인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성별, 독서량, 동아리 활동, 교우관계, 자아존중감, 시험스트레스, 학교행복감,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지원, 학교 설립유형, 교사 진로지도, 진로프로그램 시행 정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김기헌 외, 2014; 김유미, 권윤정, 2015; 김진원, 모영민, 2019;

---

6) 사교육 비용이 아닌 사교육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한 이유는 결측 비율 때문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의 데이터를 합친(merge) 이후, 사교육 비용에 대한 결측치는 570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분석 대상의 20%가 넘는 수치다. 결측이 발생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합한 대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측을 제거(listwise deletion)하고 분석할 경우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결측치는 97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4% 정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결측치를 제거(listwise deletion)하고 분석하여도 결과 해석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김희수, 김옥희, 2007; 박보경, 배상훈, 2019; 이정민, 정혜원, 2019; 임현정, 2016).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였을 때, 가장 높은 VIF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변수가 1점대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변수 간 상관관계 수준은 허용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성별은 남학생을 '1'로 여학생은 '0'으로 코딩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편포가 심해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학교 설립유형은 국·공립학교를 '1'로 사립학교는 '0'으로 코딩하였다.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표 3-1>과 같다.

<표 3-1> 진로성숙도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에 관한 7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독립변수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1), 자유학기제(0)
학생변수	남학생	남학생(1), 여학생(0)
	독서량	한 달 평균 독서량(권)
	동아리 활동	월평균 동아리 참여 횟수
	교우관계	교우관계에 관한 5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한 3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시험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6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학교행복감	학교행복감에 대한 5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로그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부모의 교육지원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8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학교변수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학교(1), 사립학교(0)
	교사 진로지도	교사의 진로지도에 대한 평균값(5점 척도)
	진로프로그램 시행	진로지도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9개 문항의 평균값(5점 척도)

창의성 역량 또한 학생 개인의 특성과 가정배경, 학교요인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성별, 독서량, 동아리 활동, 사교육 참여, 교우관계, 시험스트레스, 학교행복감,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지원, 학교설립유형, 토의·토론 수업, 진로프로그램 시행 정도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김수연, 이경화, 2015; 김청자, 2008; 도남희 외, 2016; 민지연, 서은진, 2009; 박희진, 남궁지영, 2016; 신민희, 구재선, 2010; 전화숙, 2017; 하주현, 박은희, 2013; He & Wong, 2015).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IF를 확인하였을 때, 가장 높은 VIF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변수가 1점대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변수 간 상관관계 수준은 허용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표 3-2>와 같다.

<표 3-2> 창의성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창의성	창의성에 관한 5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독립변수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1), 자유학기제(0)
학생변수	남학생	남학생(1), 여학생(0)
	독서량	한 달 평균 독서량(권)
	동아리 활동	월평균 동아리 참여 횟수

	사교육 참여	사교육 참여(1), 미참여(0)
	교우관계	교우관계에 관한 5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시험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6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학교행복감	학교행복감에 대한 5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로그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부모의 교육지원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8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학교변수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학교(1), 사립학교(0)
	토의·토론 수업	토의·토론 수업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균값(3점 척도)
	진로프로그램 시행	진로지도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9개 문항의 평균값(5점 척도)

학업성취도 역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사교육 참여 여부,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수업태도, 시험스트레스, 월평균 가구소득, 부모의 교육지원, 학교 설립유형, 남녀공학 학교 여부, 다문화 학생 비율, 평균 교사 경력, 기간제 교사 비율,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 참여 정도를 통제하였다(곽수란, 2009; 곽현주 외, 2016; 김경근, 장희원, 2016; 김광혁, 2010; 김양분, 강호수, 2017; 김양분, 김난옥, 2015; 박소영 외, 2022; 송미영 외, 2011; 시기자 외, 2015; 이승호 외, 2016; 이현숙 외, 2011; 임현정 외, 2016; 한희진, 양정호, 2011). 또한 누적된 학교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국어, 수학, 영어의 과목별 사전 학업성취도를 투입하였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IF를 확인하였을 때, 모든 변수가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변수 간 상관관계 수준은 허용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사전 학업성취도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수직척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사교육을 참여할 경우 '1'로

미참여할 경우 '0'으로 코딩하였으며, 방과후학교를 참여할 경우 '1'로 미참여할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남녀공학 여부는 남학교 또는 여학교일 경우 '1'로 남녀공학 학교일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수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였으며, 기간제 교사 비율은 기간제 교사의 수를 전체 교사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표 3-3>과 같다.

<표 3-3> 학업성취도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국어 학업성취도	국어 수직척도 점수
	수학 학업성취도	수학 수직척도 점수
	영어 학업성취도	영어 수직척도 점수
독립변수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1), 자유학기제(0)
학생변수	남학생	남학생(1), 여학생(0)
	국어, 수학, 영어 사전 학업성취도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수학, 영어 과목별 수직척도 점수
	사교육 참여	사교육 참여(1), 미참여(0)
	방과후학교 참여	방과후학교 참여(1), 미참여(0)
	수업태도	국어, 수학, 영어 수업태도 5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시험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6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로그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부모의 교육지원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8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학교변수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학교(1), 사립학교(0)

	남녀공학 여부	남학교 또는 여학교(1), 남녀공학(0)
	다문화 학생 비율	다문화 가정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평균 교사 경력	교사의 평균 교육 경력
	기간제 교사 비율	기간제 교사 수 / 전체 교사 수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 참여에 대한 5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마지막으로 사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 평균 학업성취도,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시험 스트레스, 학교행복감, 월평균 가구소득, 양친 동거 여부, 부모의 교육지원, 학교 설립유형, 평균 교사 경력, 기간제 교사 비율,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 참여 정도를 통제하였다(김주후, 2006; 김혜숙, 2012; 김희삼, 2009; 문지영 외, 2018; 박현정, 2008; 송경오, 2013; 이수정, 2007; 이수정, 민병철, 2009; 이종재 외, 2010; 최상근 외, 2003).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IF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가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변수 간 상관관계 수준은 허용할 만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평균 학업성취도는 국어, 수학, 영어 수직척도 점수의 평균값을 활용하였고, 양친 동거 여부는 부모님과 모두 동거할 경우 '1'로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는 <표 3-4>와 같다.

<표 3-4> 사교육 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사교육 참여	사교육 참여(1), 미참여(0)
독립변수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1), 자유학기제(0)
학생변수	남학생	남학생(1), 여학생(0)

	평균 학업성취도	국어, 수학, 영어 수직척도 점수의 평균
	방과후학교 참여	방과후학교 참여(1), 미참여(0)
	시험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6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학교행복감	학교행복감에 대한 5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로그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양친 동거 여부	양친 동거(1), 비동거(0)
	부모의 교육지원	부모의 교육지원에 대한 8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학교변수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학교(1), 사립학교(0)
	평균 교사 경력	교사의 평균 교육 경력
	기간제 교사 비율	기간제 교사 수 / 전체 교사 수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 참여에 대한 5개 문항의 평균값 (5점 척도)

제 4 절 분석 방법

1. 통상자승회귀분석법(Ordinary Least Square)

자유학년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통상최소자승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활용한 분석모형은 다음 <식 1>과 같다.

<식 1> $Y_i = \beta_0 + \beta_1 Freeyear_i + \beta_2 Stu_i + \beta_3 Sch_i + \epsilon_i$

Y는 학생 i의 진로성숙도, 창의성, 학업성취도, 사교육 참여 여부를 의미하며, Freeyear는 학생 i의 자유학년제 경험 여부를 나타낸다. Stu와 Sch는 통제변수로 투입된 학생 및 학교 특성을 나타내며, ϵ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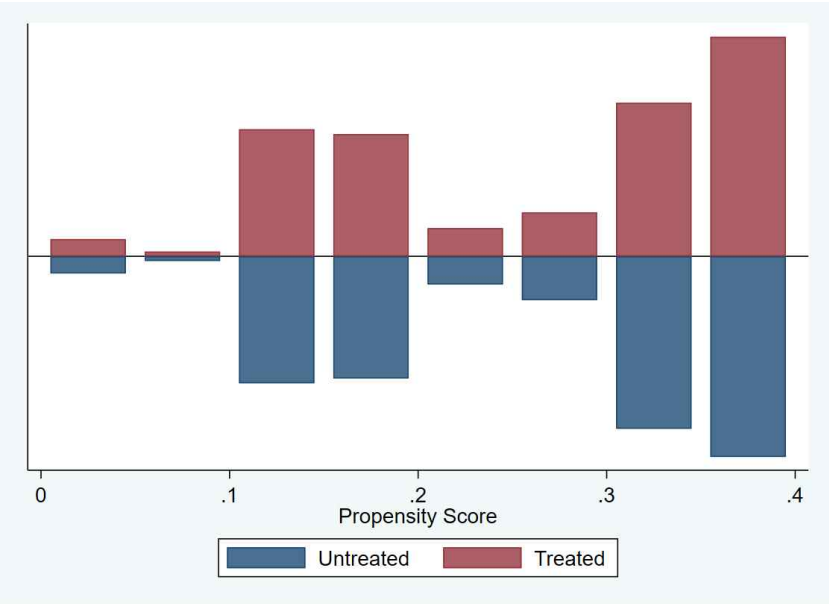
2. 경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그러나 통상자승회귀분석만으로는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자유학년제 경험 여부를 제외하고 다른 특성들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동일해야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등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할 수 있다. 선택편의 문제를 보정하여 통계적으로 엄밀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시행하고자 한다.

경향점수매칭이란 처치를 받게 되는 일종의 확률 개념인 경향점수(propensity score)를 활용하여 통제집단에서 처치집단과 비슷한 대상을 매칭시키는 방법이다(Rosenbaum & Rubin, 1983). 즉, 처치집단 혹은 통제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변인(covariate)들을 바탕으로

경향점수를 산출하고, 이 경향점수를 활용하여 사례들을 매칭시켜 분석하는 방법이다.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수식은 <식 2>와 같다. 이처럼 경향점수가 동일한 사례를 매칭시키면 선택 편의를 최소화하고 보다 엄밀한 인과추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변인들을 통해 산출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경향점수 분포가 겹쳐야 한다는 공통영역(common support)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Caliendo & Kopeining, 2008). 본 연구에서 공통영역에 대한 가정을 검토한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식 2> $e_i = \Pr(T_i = 1|X_i)$



[그림 3-2] 집단 간 경향점수 공통영역 분포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년제 경험 여부에 대한 집단 간의 이질성을 경향점수매칭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중학생의 자유학년제 경험은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학교 특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즉, 특정한 성향을 가진 학교들이 자유학년제 혹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특성과 관련한 공변인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자유학년제 경험에 대한 경향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3-5>와 같이 학교 설립유형, 자율학교 여부, 남녀공학 여부,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여부, 메이커교실 시행 여부, 다문화 학생 비율, 특수 학생 비율을 경향점수 산출을 위한 공변인으로 선정하였다(김성아, 송경오, 2015; 문찬주, 정동욱, 2020; 신철균 외, 2014; 신철균, 박민정, 2017; 조성경 외, 2018).

<표 3-5> 경향점수매칭을 위한 공변인

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종속변수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0), 자유학기제(1)
학교변수	학교 설립유형	국·공립학교(1), 사립학교(0)
	자율학교 여부	자율학교(1), 비자율학교(0)
	남녀공학 여부	남학교 또는 여학교(1), 남녀공학(0)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여부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1), 비지원 학교(0)
	메이커교실 시행 여부	메이커교실 시행(1), 미시행(0)
	다문화 학생 비율	다문화 가정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특수 학생 비율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 전체 학생 수

경향점수매칭을 위해 사용한 BELS 4차년도 중학교 데이터에는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보다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가 적다. 따라서 경향점수매칭 시에 자유학기제 시행학교를 처지집단으로, 자유학년제 시행학교를 통제집단으로 두어 매칭을 실시하였다. 관찰연구 상황에서의 처치효과는 ATT, ATC, ATE로 세분화된다(Guo & Fraser, 2014; Morgan & Winship, 2015). ATC, ATT, ATE 중 어떤 분석을 수행할 것인지는 연

구자의 문제의식과 연구가설에 기반한 판단에 따른다(Leite, 2016).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의 효과 분석에 문제의식이 있으며, 통제집단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처치집단의 사례들을 매칭한 것이므로 ATC 분석에 해당한다(백영민, 박인서, 2021). ATC(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Control)는 통제집단에서 나타날 처치 효과를 의미하므로,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제로 자유학년제를 경험했다면 나타나게 될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접 매칭법(Nearest Neighbor matching)을 활용하여 비복원으로(matching without replacement) 1:1 매칭을 하였다. 이를 통해 비슷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매칭시켜 집단 간의 이질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경향점수 매칭 전후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6>은 t 검정 결과를 보여주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집단 간의 이질성이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한 후에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 경향점수매칭 전후 집단 간 평균 차이

	매칭 전			매칭 후		
	자유학기	자유학년	t	자유학기	자유학년	t
학교 설립유형	0.89	0.81	4.13***	0.89	0.87	1.03
자율학교 여부	0.04	0.07	-2.70***	0.04	0.04	-0.17
남녀공학 여부	0.03	0.12	-5.77***	0.03	0.03	-0.00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 여부	0.41	0.60	-7.50***	0.41	0.43	-0.60
메이커교실 시행 여부	0.35	0.52	-6.46***	0.35	0.31	1.04
다문화 학생 비율	1.10	1.17	-1.55	1.10	1.16	-1.11
특수 학생 비율	1.05	1.22	-4.13***	1.05	1.00	1.11

주: * p<0.1, ** p<0.05, *** p<0.01

제 4 장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창의성, 학업성취도 및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집단과 통제집단 및 처치집단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을 하였다. 경향점수매칭 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열에는 모집단인 전체 학생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 열에는 통제집단인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에 대하여, 세 번째 열에는 처치집단인 자유학년제 경험 학생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측치를 제외(listwise deletion)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보다 0.05 높게 나타났다. 둘째, 창의성 또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보다 0.02 근소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업성취도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보다 국어가 3.94, 수학은 9.03, 영어는 8.18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보다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이 3%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로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유학년제보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남학생의 비율이 소폭 높았으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월평균 독서량은 더 많게, 시험스트레스는 더 낮으며, 사전 학업성취도 및 평균 학업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 및 양친 동거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보다 학교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와 방과후학교 참여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수업태도가 더 좋게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교우관계는 모두 5점 척도의 4점대의 높은 수치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로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교와 자유학년제를 시행한 학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 학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모두 높았지만,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의 국공립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 남녀공학 학교의 비율이 더 높았고, 기간제 교사 비율도 더 높았다. 한편 자유학년제 시행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더 높으며, 평균 교사 경력이 더 많고, 교사들의 진로지도, 토의·토론 수업 정도, 수업개선 활동 참여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프로그램 시행 정도는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가 근소하게 더 높으나, 자유학기제 시행학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1> 주요 변수 기술통계

변수	전체		자유학기		자유학년	
	Mean	SD	Mean	SD	Mean	SD
진로성숙도	3.77	0.96	3.81	0.97	3.76	0.96
창의성	3.45	0.91	3.46	0.94	3.44	0.90
국어 학업성취도	310.37	37.30	313.51	38.03	309.57	37.08
수학 학업성취도	312.45	66.90	319.63	69.45	310.60	66.13
영어 학업성취도	350.63	53.95	357.14	55.78	348.96	53.35
사교육 참여	0.82	0.39	0.79	0.40	0.82	0.38
성별	0.52	0.50	0.54	0.50	0.52	0.50
독서량	1.51	1.25	1.60	1.29	1.49	1.24
동아리활동	2.21	0.98	2.18	1.05	2.21	0.96
방과후학교참여	0.10	0.30	0.07	0.25	0.11	0.31
자아존중감	4.24	0.85	4.24	0.88	4.24	0.85
시험스트레스	3.50	0.98	3.47	0.99	3.51	0.98
학교행복감	4.14	0.82	4.10	0.86	4.15	0.81
교우관계	4.32	0.75	4.32	0.74	4.31	0.76
국어 사전	306.24	32.27	309.15	32.52	305.49	32.17

학업성취도						
수학 사전 학업성취도	297.12	48.34	303.17	47.41	295.57	48.46
영어 사전 학업성취도	336.09	45.70	340.13	44.35	335.06	46.00
학업성취도 평균	324.48	46.76	330.09	48.99	323.04	46.08
수업태도	3.81	0.85	3.76	0.88	3.83	0.84
로그 가구소득	6.10	0.71	6.16	0.69	6.08	0.71
부모의 교육지원	3.28	0.60	3.31	0.62	3.27	0.59
양친 동거 여부	0.81	0.39	0.84	0.37	0.80	0.40
학교 설립유형	0.82	0.39	0.90	0.30	0.80	0.40
남녀공학	0.37	0.48	0.29	0.45	0.38	0.49
다문화 학생 비율	1.50	1.20	1.28	0.99	1.56	1.24
평균 교사 경력	18.88	4.33	18.62	4.80	18.94	4.20
기간제교사 비율	19.82	8.37	21.36	7.53	19.42	8.53
교사 진로지도	3.83	0.31	3.79	0.28	3.84	0.31
진로프로그램 시행	0.95	0.09	0.95	0.10	0.96	0.09
토의·토론 수업	3.41	0.31	3.37	0.24	3.42	0.33
교사수업개선 활동	3.22	0.45	2.96	0.44	3.29	0.42
N	2385		487		1898	

<표 4-2>는 경향점수매칭 이후의 기술통계를 나타낸다.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성숙도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의 차이가 0.01 정도로 크지 않다. 둘째, 창의성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보다 0.03 근소한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업성취도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보다 국어는 3.33, 수학은 3.43, 영어는 3.73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사교육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보다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이 5%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향점수매칭 이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자유학년

제를 경험한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유학년제보다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월평균 독서량은 더 많게, 시험스트레스는 더 낮게 나타났으며, 국어 및 수학 과목의 사전 학업성취도와 중학교 2학년 때의 평균학업성취도가 더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지원 정도 및 양친 동거 비율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보다 월평균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 및 방과후 학교 참여 정도가 더 많았고, 전반적인 수업태도와 학교행복감이 더 좋게 나타났으며, 영어 과목의 사전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 경향점수매칭 이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향점수매칭 이후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학교와 자유학년제를 시행한 학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및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 모두 국·공립 학교의 비율이 높았지만,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의 국공립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는 경향점수매칭 이전보다는 차이가 줄었지만 남녀공학 학교의 비율이 높으며, 다문화 학생 비율과, 기간제교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학년제 시행학교는 평균 교사 경력이 더 높고, 토의·토론 수업 시행 정도, 교사의 진로지도,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 참여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프로그램 시행 정도는 경향점수매칭 이후 자유학기제 시행학교와 자유학년제 시행학교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향점수매칭 이후 경향점수매칭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학교 간 차이가 줄었지만, 근소한 차이가 존재하는 학교 변수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술통계는 BELS 5차년도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반면, 경향점수매칭은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제 시행 기간을 고려하여 4차년도 자료에서 공변인을 선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설명 가능하다.

<표 4-2> 경향점수매칭 이후 주요 변수 기술통계

변수	전체		자유학기		자유학년	
	Mean	SD	Mean	SD	Mean	SD
진로성숙도	3.83	0.97	3.83	0.98	3.84	0.96

창의성	3.48	0.91	3.49	0.92	3.46	0.90
국어 학업성취도	312.73	37.41	314.40	38.25	311.07	36.50
수학 학업성취도	319.49	68.08	321.21	69.63	317.78	66.53
영어 학업성취도	356.55	53.82	358.41	55.73	354.68	51.84
사교육 참여	0.83	0.38	0.80	0.40	0.85	0.35
성별	0.49	0.50	0.55	0.50	0.43	0.50
독서량	1.58	1.27	1.61	1.28	1.55	1.26
동아리활동	2.21	1.02	2.18	1.06	2.23	0.98
방과후학교참여	0.08	0.27	0.07	0.25	0.09	0.29
자아존중감	4.28	0.83	4.28	0.85	4.29	0.81
시험스트레스	3.51	1.01	3.47	1.00	3.55	1.02
학교행복감	4.13	0.82	4.12	0.84	4.14	0.80
교우관계	4.35	0.72	4.35	0.72	4.35	0.73
국어 사전 학업성취도	308.28	32.14	309.49	32.62	307.08	31.64
수학 사전 학업성취도	302.27	47.99	304.85	46.81	299.69	49.06
영어 사전 학업성취도	341.23	43.93	340.87	43.64	341.60	44.27
학업성취도 평균	329.59	47.36	331.34	49.18	327.84	45.45
수업태도	3.84	0.84	3.78	0.86	3.89	0.81
로그 가구소득	6.14	0.77	6.16	0.70	6.12	0.83
부모의 교육지원	3.30	0.60	3.32	0.62	3.29	0.58
양친 동거 여부	0.82	0.39	0.84	0.37	0.80	0.40
학교 설립유형	0.88	0.32	0.90	0.30	0.87	0.34
남녀공학	0.35	0.48	0.31	0.46	0.40	0.49
다문화 학생 비율	1.34	1.02	1.36	0.98	1.32	1.06
평균 교사 경력	18.58	4.27	18.43	4.91	18.73	3.51
기간제교사 비율	20.07	7.58	21.61	7.73	18.53	7.11
교사 진로지도	3.80	0.33	3.78	0.28	3.83	0.37
진로프로그램 시행	0.97	0.08	0.97	0.06	0.97	0.10
토의·토론 수업	3.37	0.24	3.35	0.24	3.40	0.24

교사수업개선 활동	3.09	0.46	2.92	0.43	3.26	0.42
N	914		457		457	

2.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

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아래 <표 4-3>은 자유학기제에 비해 자유학년제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자승회귀모형(OLS)과 경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최소자승회귀모형(OLS)만을 활용할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선택 편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향점수매칭(PSM)을 통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보다 엄밀한 인과추정을 도모하였다.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하여 최소자승회귀모형(OLS)으로 분석한 결과는 첫 번째 열에, 경향점수매칭(PSM)으로 분석한 결과는 두 번째 열에 제시하였다.

우선, 최소자승회귀모형(OLS)으로 분석한 결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할 경우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것에 비해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0.05만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학생일수록, 월평균 독서량이 많고,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많고,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과 학교행복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교육지원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진로성숙도가 높아졌다.

경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자유학년제를 경험할 경우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것에 비해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0.01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경향점수매칭 이후 통제변수 중에서는 월평균 독서량이 많고, 동아리 활동 참여 횟수가 많고, 자아존중감과 학교행복감이 높을수록, 시험스트레스는 낮을수록, 그리고 학교에서 진로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진로성숙도가 높아졌다.

<표 4-3>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구분		진로성숙도	
		OLS	PSM
독립변수	자유학년제	-0.05 (0.04)	0.01 (0.06)
학생변수	남학생	0.06* (0.04)	0.06 (0.06)
	독서량	0.07*** (0.01)	0.05** (0.02)
	동아리 활동	0.05*** (0.02)	0.06** (0.03)
	교우관계	0.15*** (0.04)	0.10 (0.06)
	자아존중감	0.20*** (0.03)	0.16*** (0.05)
	시험스트레스	-0.03 (0.02)	-0.06* (0.03)
	학교행복감	0.25*** (0.04)	0.32*** (0.06)
	로그 가구소득	-0.01 (0.02)	0.02 (0.04)
	부모의 교육지원	0.05* (0.03)	0.04 (0.05)
학교변수	학교 설립유형	0.00 (0.05)	0.01 (0.10)
	교사 진로지도	-0.03 (0.06)	0.04 (0.10)
	진로프로그램 시행	0.24 (0.18)	0.73** (0.32)
_cons		0.92** (0.38)	0.29 (0.67)
R-sq		0.222	0.207
N		2385	914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아래 <표 4-4>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자유학년제가 중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자승회귀모형(OLS)과 경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우선, 최소자승회귀모형(OLS)으로 분석한 결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할 경우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것에 비해 학생의 창의성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학생일수록, 월평균 독서량이 많고,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시험스트레스는 낮고, 학교행복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창의성이 높아졌다.

경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을 때에도, 자유학년제를 경험할 경우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것에 비해 학생의 창의성이 0.01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경향점수매칭 이후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학생일수록, 월평균 독서량이 많고, 시험스트레스는 낮고, 학교행복감이 높을수록, 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의 교육지원이 많고, 토의·토론 수업의 시행 정도가 적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창의성이 높아졌다.

<표 4-4>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구분		창의성	
		OLS	PSM
독립변수	자유학년제	0.00 (0.04)	0.01 (0.05)
학생변수	남학생	0.11*** (0.03)	0.15*** (0.06)

	독서량	0.11*** (0.01)	0.11*** (0.02)
	동아리 활동	0.01 (0.02)	0.04 (0.03)
	사교육 참여	0.06 (0.05)	0.13 (0.08)
	교우관계	0.14*** (0.04)	0.04 (0.05)
	시험스트레스	-0.13*** (0.02)	-0.12*** (0.03)
	학교행복감	0.27*** (0.04)	0.34*** (0.05)
	로그 가구소득	0.14*** (0.03)	0.13*** (0.04)
	부모의 교육지원	0.04 (0.03)	0.08* (0.05)
학교변수	학교 설립유형	-0.01 (0.04)	0.06 (0.08)
	토의·토론 수업	-0.06 (0.05)	-0.18* (0.11)
	진로프로그램 시행	0.16 (0.18)	0.36 (0.33)
_cons		0.94*** (0.34)	1.02* (0.62)
R-sq		0.204	0.223
N		2385	914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3.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

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아래 <표 4-5>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자유학년제가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자승회귀모형(OLS)과 경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우선, 최소자승회귀모형(OLS)으로 분석한 결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할 경우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것에 비해 학생의 국어 학업성취도가 2.69점만큼 낮아지고, 수학 학업성취도는 5.83점만큼 낮아지고, 영어 학업성취도는 3.93점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학생일수록, 사전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할수록, 수업태도가 좋을수록, 시험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은 많을수록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는 수학 학업성취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교육지원은 수학과 영어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학교특성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영어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고, 평균 교사 경력이 많을수록 수학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경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할 경우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것에 비해 학생의 국어 학업성취도가 4.48점만큼 낮아지고, 수학 학업성취도는 6.20점만큼 낮아지고, 영어 학업성취도도 6.45점만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사전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할수록, 수업태도가 좋을수록, 시험스트레스는 낮을수록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일수록 국어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수학과 영어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학교 특성 중에서는 남녀공학 학교일수록 영어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고, 다문화 학생 비율은 국어와 영어 학업성취도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을수록 영어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표 4-5>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구분		국어		수학		영어	
		OLS	PSM	OLS	PSM	OLS	PSM
독립변수	자유학년제	-2.69* (1.58)	-4.48** (2.17)	-5.83** (2.67)	-6.20* (3.58)	-3.93* (2.10)	-6.45** (2.89)
학생특성	남학생	-11.68*** (1.27)	-11.18*** (2.12)	-8.29*** (2.04)	-4.42 (3.38)	-5.71*** (1.61)	-3.74 (2.73)
	사전 학업성취도	0.56*** (0.02)	0.52*** (0.03)	0.71*** (0.02)	0.71*** (0.04)	0.70*** (0.02)	0.66*** (0.03)
	사교육 참여	4.88*** (1.68)	8.09*** (2.74)	28.39*** (2.78)	29.84*** (4.84)	10.49*** (2.08)	16.80*** (3.62)
	방과후학교 참여	3.02 (2.25)	0.56 (3.79)	-7.58** (3.36)	-8.41 (6.13)	-3.19 (2.59)	-2.34 (5.17)
	수업태도	5.76*** (0.79)	7.02*** (1.33)	15.22*** (1.30)	19.16*** (2.25)	9.16*** (1.04)	10.92*** (1.89)
	시험 스트레스	-1.36* (0.65)	-2.75** (1.10)	-3.47*** (1.06)	-5.05*** (1.68)	-2.43*** (0.82)	-2.90** (1.37)
	로그 가구소득	2.17** (0.98)	1.66 (1.57)	5.99*** (1.58)	5.04** (2.52)	4.97*** (1.25)	5.94*** (1.89)
	부모의 교육지원	1.51 (1.13)	1.2 (1.95)	5.30*** (1.87)	2.36 (3.17)	3.90*** (1.39)	2.62 (2.36)
학교특성	학교 설립유형	-1.50 (2.02)	1.18 (3.14)	-2.73 (3.37)	-5.76 (5.24)	-0.67 (2.48)	3.34 (4.00)
	남녀공학 여부	1.59 (1.39)	2.28 (2.37)	1.75 (2.18)	3.76 (3.60)	2.69 (1.69)	5.44* (2.81)
	다문화 학생 비율	-0.68 (0.54)	-2.15* (1.12)	-1.14 (0.95)	-2.00 (1.81)	-1.64** (0.68)	-3.61** (1.50)
	평균 교사 경력	-0.16 (0.17)	-0.07 (0.27)	-0.49* (0.27)	-0.04 (0.44)	0.17 (0.21)	-0.34 (0.36)

	기간제 교사 비율	-0.10 (0.09)	-0.15 (0.18)	-0.12 (0.15)	-0.26 (0.27)	0.10 (0.12)	-0.43** (0.22)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	-0.15 (1.40)	-1.44 (2.64)	3.63 (2.40)	5.5 (4.19)	-1.98 (1.85)	-3.95 (3.22)
_cons		114.23*** (11.7)	130.81*** (20.34)	-8.06 (17.29)	-13.35 (27.57)	47.63*** (13.01)	72.59*** (21.91)
R-sq		0.361	0.359	0.477	0.482	0.524	0.5
N		2385	914	2385	914	2385	914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나.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효과

아래 <표 4-6>은 자유학기제에 비해 자유학년제가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자승회귀모형(OLS)과 경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다. 우선, 최소자승회귀모형(OLS)으로 분석한 결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할 경우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것에 비해 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5%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남학생일수록, 평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시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고, 부모의 교육지원이 많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경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할 경우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것에 비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8%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평균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고, 부모님 양친과 함께 거주할수록, 학교의 평균 교사 경력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표 4-6> 사교육에 미치는 효과

구분		사교육 참여	
		OLS	PSM
독립변수	자유학년제	0.05*** (0.02)	0.08*** (0.02)
학생변수	남학생	0.03** (0.02)	0.03 (0.02)
	평균학업성취도	0.01*** (0.00)	0.01*** (0.00)
	방과후학교 참여	-0.11*** (0.03)	-0.11** (0.05)
	시험 스트레스	0.02** (0.01)	0.01 (0.01)
	학교 행복감	0.01 (0.01)	0.00 (0.02)
	로그 가구소득	0.09*** (0.01)	0.07*** (0.02)
	양친 동거 여부	0.03 (0.02)	0.07** (0.03)
	부모의 교육지원	0.04*** (0.01)	0.02 (0.02)
학교변수	학교 설립유형	-0.01 (0.02)	0.06 (0.04)
	평균 교사 경력	0.00 (0.00)	0.01** (0.00)
	기간제 교사 비율	0.00 (0.00)	0.00 (0.00)
	교사의 수업개선 활동	-0.01 (0.02)	-0.03 (0.03)
_cons		-0.63*** (0.13)	-0.58*** (0.22)
R-sq		0.135	0.147
N		2385	914

주: 1) * p<0.1, ** p<0.05, *** p<0.01
2) 괄호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임.

제 5 장 논의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의 정책 효과를 자유학기제와 비교하는 연구로,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의도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와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 간의 선택편의를 보정하고자 경향점수매칭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학년제 정책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비교 논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을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본 절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자유학기제 대한 연구에 기반하여,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미참여 학생과 비교하여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자유학기제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는 경우(김위정, 2017; 이필남, 2020)도 있었으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연구(문찬주, 정동욱, 2020; 심재희 외, 2017; 이인회 외, 2016)도 다수였다. 이상의 연구에 근거하여 자유학기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자유학기제의 영향을 지속·확대하기 위해 자유학년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자유학년제가 특별히 진로성숙도 함양에 효과적이지는 않음을 확인하였다. 자유학년제의 실시가 자유학기제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참여 학생과 비교하여 자유학기제가 학생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 중, 학생의 창의성 역량에 집중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자유학기제의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창의성과 같은 핵심역량의 함양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성보다는 넓은 개념인 정의적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박윤수(2017)는 자유학기제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몇 안되는 연구에 해당하는데, 연구 결과 자유학기제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결국 자유학기제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인데, 그마저도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의성보다 더 큰 범주인 정의적 역량에 자유학기제가 미치는 효과 역시도 회의적인 결과가 주를 이룬다(김동심, 2017; 이필남, 2020). 그 가운데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를 시행하여도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들의 창의성이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어도 부재했던 효과가, 한 학기를 연장한다고 하여 달라지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자유학기(년)제가 학생들의 창의성 역량 함양에 기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미참여 학생과 비교하여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상이한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자유학기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거나(문찬주 외, 2020; 이필남, 2020) 긍정적이라는(김양분, 2016; 김양분 외, 2019; 조성경 외, 2020) 연구에 따르면,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는 염려할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유의하게 저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 학기 시행과 일 년 시행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유학기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정적(김위정, 2017; 이필남, 2020)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저하되는데, 자유학기제에 비해서도 자유학년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경각심을 가지게끔 한다. 이는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참여 학생과 비교하여 자유학기제가 학생의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양분, 2016; 김위정, 2017; 조성경 외, 2018; 이필남, 2020).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자유학년제 시행은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비율을 유의하게 높였다. 이는 한 학기 단위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와 다르게, 한 학년 단위로 시행되는 자유학년제로 인해 학부모의 불안도가 더욱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사교육 의존 문제는 염려할 정도가 아니었으나,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사교육 의존 문제가 심화 되었을 수 있다. 종합하면, 자유학기제 시행 이후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던 우려들이 자유학년제 시행 이후 가시화되고 심화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 논의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가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에 비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진로성숙도 및 창의성 역량 함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질 높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부족하며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자유학년제를 확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자유학년제를 위한 예산 지원을 줄이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9년도에 55억원 가량 편성했던 자유학년제 예상을 2020년도에는 21억원 가량 편성하면서 34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시 2020년도에 재정 부족을 이유로 자유학년제 예산을 절반 가량 삭감하였고, 교사의 직접지도를 요구하며 외부 강사료도 제한하였다(서울경제, 2021.05.06.; 한국교육신문, 2019.12.24.). 이러한 현상은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예산 한계로 전문강사초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학교의 교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업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연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교사가 교과 수업 외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교과 수업과 업무 외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심화된 교과 수업, 동아리 수업 외의 차별성 있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더불어 진로체험 및 문화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것도 대표적인 지적이다. 유사하고 중복된 체험처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유학년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체험처 부족 및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폭이 자유학기제에 비해 풍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김아미 외, 2017; 에듀동아, 2018.02.23.). 이처럼 예산 부족, 체험처 부족, 인력 부족의 이유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배경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김아미 외, 2017). 총 6학기로 구성되어 있는 중학교 기간 중, 2학기는 상당히 긴 시간이다. 예산, 전문강사, 체험처 등의 현실적인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정책 시행의 기간만 증가시키는 것은 정당성 있는 정책 설계라고 하기 어렵다.

자유학년제의 시행 시기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지적 역시 제기될 수 있다(강버들, 2015; 강재태, 유영주, 2017; 김재춘, 2017).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부터 정책 시행 시기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었다. 적합한 학교급 및 학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시행으로 안착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교 1학년이 입시 부담이 가장 적어 부정적인 부수효과에 대한 염려가 적었으며(강재태, 유영주, 2017), 초등학교에서 경험한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수행평가와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제기되었다(김아미 외, 2017). 또한 학생들이 일찍 진로를 탐색할 수 있어, 자신의 진로를 순차적으로 설계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학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었다(김재춘, 2017). 하지만 자유학기(년)제가 벤치마킹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나 영국의 갭이어 등이 고등학교 시기에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로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이 가능한 성숙한 시기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김재춘, 2017). 혹은 중학교에서 시행할지라도 1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강버들, 2015). 결국 이상의 논쟁을 종합하면, 자유학년제가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배경에는 자유학년제의 시행 시점이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 논의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년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기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학년제 시행 이후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인식 조사가 많았는데(에듀동아, 2018.02.23.; 중앙신문, 2022.12.07.; KBS, 2017.11.06.),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학년제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저하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교과시수를 감축하고 체험 위주의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 인해 학생들게 필요한 교과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신철균, 박민정, 2015). 또한 체험처 발굴 및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인해 교사들의 근무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지도가 소홀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김아미 외, 2017; 김은영 외, 2016). 특히 지필평가가 1년 동안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시험이 생소하고 학업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학생들은 교과의 필수 내용을 숙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중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학년제 정책 집행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자유학년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경험하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업을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됨을 나타낸다. 이는 교과시수 감축, 교사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의 질이 낮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김아미 외, 2017; 신철균, 박민정, 2015). 특히 박윤수(2017)는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을 비교하여, 자유학기제가 저소득층 학생의 사교육 투자는 높이지 않았지만 고소득층 학생의 사교육 투자를 높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유학년제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교육 격차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자유학년제가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효과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유학년제 혹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 및 변동이 극심한 현재 시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자유학기제와 비교하여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평가 모형 중 부수효과 모형에 근거하여 정책이 의도한 효과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유학년제가 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유학년제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종단연구(BELS) 데이터를 통상자승회귀분석법과 경향점수매칭법을 활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앞서 분석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와 비교했을 때 자유학년제가 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유학년제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및 창의성을 비롯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도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자유학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체험처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혹은 자유학년제 시행 시점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순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시행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기 어렵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둘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를 모두 유의하게 저하시켰다. 이를 통해 자유학년제 시행 이후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이 자유학기제 미경험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저하되었음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있는데(김위정, 2017; 이필남, 2020), 자유학기제에 비해서도 자유학년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경각심을 가지게끔 한다. 교과시수 감축, 교육과정의 유연화, 체험 위주의 교육, 지필평가 미실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과의 필수 내용 숙지에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생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유학년제 정책 집행에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에 비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유의하게 높였다. 자유학기제 시행 학교에 비해 자유학년제 시행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으며, 학력 저하를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사교육 의존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최상덕 외, 2015a). 이는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인해 교과시수 감축, 교사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신철균, 박민정, 2015). 종합하면, 본 연구 결과 자유학년제가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 반면 자유학년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물적·인적 지원을 통해 교사의 업무 과중을 해소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단순히 정책 시행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예산 부족, 체험처 부족, 인력 부족의 이유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한정된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지하기 보기보다는,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교·강사를 초빙하고, 프로그램 운

영을 돕는 코디네이터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진로체험이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간 체험의 편차를 줄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지원이 마련이 될 때, 학생들은 진로설계나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는 풍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들도 수업 및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수업의 질이 보장이 되고 학생과 교사의 교류가 회복된다면 자유학년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 및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 지필평가가 1년 동안 시행되지 않으면서 학업 부담 저하, 교과의 필수 지식 미숙지 등으로 인해 학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도 심해졌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방법인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학교 본연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우선 교사들이 새로운 평가 방식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과정 중심 평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김은영 외, 2016). 예를 들어 교사들이 평가의 질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수행평가 진단도구를 배포하고, 평가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수행평가 지원 사이트를 활성화하고, 평가 전문성을 길러주는 연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취수준 도달 정도를 진단평가, 형성평가, 수행평가 등의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유학년제 및 자유학기제 정책에 대해 증거 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making)을 할 필요가 있다. 증거 기반 의사결정은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므로 정책 실패를 방지하고 보다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김유심, 2017; 문찬주 외, 2020). 따라서 정책을 둘러싸고 변동과 논쟁이 극심한 가운데, 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대규모의 지역 데이터가 표집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및 학술 연구가 수행될 것이라 예상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채택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가 많다면, 자유학기제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추가 연계학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학술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수행되는 시점에서는 같은 시기에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과 자유학년제를 경험한 학생을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는 BELS가 유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BELS를 활용하여 횡단분석을 수행하였고,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학생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부산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특수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전국의 모든 학교 및 학생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추후에는 부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자유학년제 경험 학생과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을 구분한 데이터가 다양하게 표집될 수 있다. 타지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단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자유학년제의 효과를 보다 일반화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득 수준 혹은 성적 수준과 같은 계층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가 학생에게 미치는 일반적인 효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본 분석 결과는 학생 평균에 대한 효과를 의미하며, 학생 특성이나 계층에 따른 효과 차이를 규명하지는 않았다.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 계층에 따라 다름을 밝힌 박윤수(2017)의 연구처럼, 자유학기(년)제는 학생 특성, 가정 배경, 학교 특성 등에 의해서도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년)제 정책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 이외에 교사 등 다른 교육 주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유학년제가 중학생에게 미치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데 자유학년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주체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특히 자유학기(년)제가 시행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다(김아미 외, 2017; 김은영 외, 2016; 최상덕 외, 2014). 자유학기(년)제를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수업,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시행해야 했으며, 진로체험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준비하면서 교사들의 혼란과 피로가 높아졌을 것이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교과 수업 개발, 전문성 개발, 학생 지도 등에 대한 부담이 달라졌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를 비롯한 다른 주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버들. (2015). 자유학기제 정책연구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7**(5), 1318-1333.

강재태, 유영주. (2017). 자유학기제 관련 쟁점 및 운영의 실제 현황. **현대교육연구 (구 중등교육연구), 29**, 27-46.

곽수란. (2009). 학교특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47**(3), 93-120.

곽현주, 백종면, 양예슬, 송인발. (2016). 학교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요인: 학업고성취 및 저성취수준에 미친 요인비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19**(1), 333-358.

교육부. (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2013. 5. 28.).

교육부. (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2015. 11. 25.).

교육부. (2017).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2017. 11. 6.).

교육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2021. 11. 24.)

권미경, 김형균. (2019). 자유학년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 **교육논총, 56**, 10-37.

권일남. (2015).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이 진로탐색과 진로직업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 시설환경, 13**(1), 17-26.

김경근, 장희원. (2016). 교사의 성취압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2**(2), 55-76.

김광혁. (2010).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아동 발달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2), 35-65.

김기헌,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김나라, 이지연, 정윤경, 최수정, 방재현, 최지원. (2013).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적용 방안 연구. **진로교육연구, 26**(1), 21-46.

김나라, 최지원. (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7**(3), 199-223.
김명수, 공병천. (2016). **정책평가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달효. (2015). 사례연구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21**(5), 179-202.
김동심. (2017).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교육성과 변화 분석 - 진로성숙도, 인지적·정의적·사회적 핵심역량, 학교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0**(3), 101-121.
김민채, 김영환. (2019). 자유학기제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활동 프로그램 경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5**(1), 359-378.
김성아, 송경오. (2015). 초등 혁신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혁신특성요인이 정책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8**(3), 45-70.
김수연, 이경화. (2015). 영재 인성· 진로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창의성, 자아개념 및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영재와 영재교육, 14**(1), 23-44.
김아람, 김아미. (2018). 혁신학교인 K 중학교를 통해 본 자유학년제 운영 특징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4**(5), 499-523.
김아미, 김위정, 김아람, 김지연, 윤상준. (2017). **경기 자유학년제 내실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 2017-10).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양분. (2016).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과 미경험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비 비교**.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 2016-01.
김양분, 강호수. (2017). 중학생의 학업성취 변화 관련 요인 탐색. **[KEDI] 한국교육, 44**(01).
김양분, 김난옥. (2015).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53**(3), 31-60.
김양분, 남궁지영, 박경호. (2019). 자유학기제 참여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중학생의 학업성취 변화 분석. **[KEDI] 한국교육, 46**(1), 5-39.
김유미, 권윤정. (2015). 개인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이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다층 모형의 적용. **인간발달연구, 22**, 93-111.
김유심. (2017).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785-1851.
김은영, 김경애, 김보경, 양희준, 이상은, 최상덕, 김아미, 성열관, 차성현. (2016). **자유학기제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초·중·고 운영 확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 2016-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위정. (2017). **경기도 자유학기제 성과 분석**. (이슈페이퍼 2017-01). 경기: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이경, 민수빈. (2015). 자유학기제의 도입에 따른 교사들의 직무부담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181-203.
김재춘. (2017). 자유학기제 정책의 회고와 성찰. **국어교육학연구, 52**(3), 5-35.
김종호. (2016).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제고방안.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3), 205-222.
김주후. (2006). 학교평가를 통해서 본 초등학교 교육의 질 유형화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4), 51-65.
김지선, 김도기, 김제현, 채송화, 최지원, 최재원, 김세영. (2019). 자유학기정책 집행 과정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37**(1), 83-111.
김진숙. (2013). 아일랜드 연계학년제 (TY) 와 한국 자유학기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23**(6), 163-183.
김진원, 모영민. (2019).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영향 요인 비교 분석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22**(1), 37-73.
김청자. (2008). 청소년의 환경변인이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 **열린교육연구, 16**(3), 159-181.
김평원. (2017). 중학교 자유학기 교과의 수업 모형 연구. **교육연구논총: 충북대학교교육개발연구소, 38**(2), 81-108.
김해인, 최인지, 신형진. (2016). 자유학기제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중학교의 비교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2), 45-64.
김혜숙. (201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3**.
김희삼. (2009).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의 분석. **노동경**

제논집, 32(3), 27-59.
김희수, 김옥희. (2007). 진로성숙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57-68.
노화준. (2015). **정책평가론**. 경기: 법문사.
도남희, 박창현, 김지현, 조혜주, 서유현, 최욱수, 이은정. (2016).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환경과 뇌발달 연구**. (연구보고 2016-2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문지영, 모은비, 서은경, 조정우. (2018). 벌점화 회귀모형을 사용한 사교육비 관련요인 탐색. 한국교육, 45(1), 111-137.
문찬주, 정동욱. (2020). 중학생의 자유학기제 경험이 진로 발달 및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1**(3), 755-777.
문찬주, 정설미, 이영선, 정동욱. (2020).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과 학교 수준 학업성취도 간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8**(4), 157-184.
민지연, 서은진. (2009). 창의적 교실 분위기와 창의성 및 동기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23**(4), 787-800.
박보경, 배상훈. (2019). 중학생의 개인, 가정, 학교 문화자본이 고교 진학 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20.**
박소영, 박상완, 심현기. (2022). 일반계 고등학교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학교 특성 비교: 랏소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문화연구, 28**(3), 291-320.
박윤수. (2017). **자유학기제 효과성 연구**. (연구보고 2017-13).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박윤수. (2018).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 (연구보고 2018-02).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박현정. (2008). 학교교육의 질과 사교육 참여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9.**
박희진, 남궁지영. (2016). 중학생의 '미래 핵심역량' 영향 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8), 149-172.
백영민, 박인서. (2021). **R 기반 성향점수분석_루빈 인과모형 기반 인과추론**. 서울: 한나래.
부산광역시교육청. (2020).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의 성과계획서.
송경오. (2013).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성에 대한 메타분석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44**(1), 1-29.
송미영, 김성숙, 이현숙, 김준엽. (2011).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결정요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4**(2), 261-289.
시기자, 박인용, 구남욱, 김왕수, 구슬기. (2015).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연구보고 ORM 2015-46-2).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민희, 구재선. (2010). 행복과 창의력의 관계: 행복한 사람이 더 창의적이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37-51.
신철균, 김은영, 정윤하, 황은희, 송경오, 박민정.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2014-1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신철균, 박민정. (2015).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 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3**(1), 309-338.
신철균, 박민정. (2017). 자유학기제 연계 양상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교사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4**(1), 205-234.
신철균, 황은희, 김은영. (2015). 자유학기제 운영 실태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3), 27-55.
신철균, 황은희, 송경오. (2016).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 실태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1), 165-190.
신철균. (2018). 자유학기제의 확장을 위한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의 연계 원리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393-414.
심재희, 오정아, 조오숙. (2017). 중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과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4), 67-92.
어윤경. (2015). 진로체험 중심 자유학기제의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교육연구, 30**(1), 2015.
이상은. (2017). 비교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 핵심역량 교육정책의 특징과 과제: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5**(1), 67-95.
이병환, 권민석. (2015). 연구학교 사례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

안 탐색. **교육문화연구, 21**(1), 51-74.
이병환, 임영희, 권민석. (2015). 교육공동체 의견 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 탐색. **교육종합연구, 13**(2), 103-126.
이수정. (2007).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 사교육 원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25**(4), 455-484.
이수정, 민병철. (2009). 사교육 수요와 학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학교수준의 특성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8**(4), 179-216.
이승호, 양민석, 한송이, 허소윤, 박세준, 박대권. (2016). 학교 안 교사학습공동체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4**(2), 85-113.
이인회, 김은경, 현길아, 윤두호. (2016). 대학 지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2**(4), 63-86.
이정민, 정혜원. (2019).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학생 및 학교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0**(1), 279-311.
이종재. 강일국, 김동석, 김재철, 박현정, 상경아, 송경오, 신종호, 김민조, 고영준, 이희숙, 정제영, 김용남, 민윤경, 이승호, 장선화, 장효민, 황혜영. (2010). **사교육: 현상과 대응**. 파주: 교육과학사.
이지연. (2013). [進路] 중심 자유학기제 도입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 **진로교육연구, 26**(3), 1-22.
이필남. (2020). 자유학기제의 효과 분석: 기대와 우려에 대한 계량적 접근. **교육재정경제연구, 29**(2), 61-82.
이현숙, 김성숙, 송미영, 김준엽, 양성관. (2011). 학교 특성, 과정 변인, 학업 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24**, 317-344.
임재일, 홍후조, 이재창, 김미진. (201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학생평가 특징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18**(3), 233-255.
임종헌. (2018).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 운영 사례 분석: 주제선택 활동의 교육적 의미 고찰. **교육과정평가연구, 21**(1), 31-60.
임종헌, 최원석. (2018). 과정 중심 평가′의 특징과 의미에 관한 연구: 자유학기제′ 과정 중심 평가′를 중심으로. **[KEDI] 한국교육, 45**(3),

1-32.
임현정. (2016).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의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265-285.
임현정, 시기자, 김성은. (2016). 학생 학업성취 변화의 영향요인 탐색. **교육평가연구, 29**, 125-145.
전화숙. (2017). 초등학생의 창의역량 영향요인 분석. **교육문제연구, 30**(3), 169-196.
정양덕, 윤영임, 이강택. (2015).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 **교육문제연구, 21**, 1-25.
정양순, 이예슬, 박대권. (2018). Kingdon 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한 자유학기제 정책형성 및 자유학년제로의 정책변동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 143-172.
정영근, 민용성, 변희현, 김용명, 설현수, 임지연, 장현진. (2015).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15-7-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유리, 송경오. (2017). 자유학기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반응양상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4**(3), 73-97.
정주택, 김종래, 김종호, 문영세, 이대희, 이성우, 조연숙, 최영훈. (2007). **정책평가론**, 경기: 법문사
정현선, 오은하. (2016). 중학교 자유학기제 국어과 수업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개선 사례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9**(2), 1-25.
조성경, 김민제, 박근아, 서정은, 이보미, 정동욱. (2018).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특성에 따른 정책의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4**, 41-68.
조현영, 손민호. (2017). 진로교육은 언제 역량교육이 되는가?. **교육과정연구, 35**(1), 199-219.
주휘정, 김민석. (2018). 자유학기제 참여 학생의 발달 궤적과 영향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6**, 91-113.
지은림, 원효헌, 민경석, 손원숙.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평가방안 연구**. (연구보고 CR 2014-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상근, 김양분, 유한구, 김현진, 이희숙. (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

비 규모 분석 연구. (연구보고 RR).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신철균, 박균열. (2013).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연구보고 PP2013-0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이상은, 김병찬, 박소영, 소경희, 홍창남. (2014).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 보고서**. (수탁연구 CR2014-1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이상은·김갑성·김민호·김재철·박소영. (2015a). **2014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 보고서**. (수탁연구 CR2015-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상덕, 이상은, 김은영, 신철균, 황은희, 김기헌, 김병찬, 김재철, 성열관, 오세희, 윤미선, 이원석. (2015b).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2015-1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하정희, 김명희, 조영아, 김상희. (2018).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학교사회복지, 42**, 139-162.

하주현, 박은희.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창의적 사고 및 창의적 인성 간의 관계. **창의력교육연구, 13**(3), 123-144.

한희진, 양정호. (2011). 교사공동체가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 117-140.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 (2013).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탐색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19**(2), 33-68.

Caliendo, M., & Kopeinig, S. (2008). Some practical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2**(1), 31-72.

Edward A. Suchman. (1967). *Evaluative research; principles and practice in public service & social action programs*. Russell Sage Foundation.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Jossey-Bass.

Guo, S., & Fraser, M. W. (2014). *Propensity score analysis:*

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Vol. 11). Sage publications.

He, W. J., & Wong, W. C. (2015). Creativity slump and school transition stress: A sequential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gnitive-relational theory of stres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185-190.

House, E. R. (2010). *Evaluating with validity*. IAP.

Meyers, William R. (1981). *The Evaluation Enterprise: A Realistic Appraisal of Evaluation Careers, Methods, and Applications.* Jossey-Bass.

Morgan, S. L., & Winship, C. (2015). *Counterfactuals and causal in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land, O. F. (1974). Program evaluation and administrative theo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4*(4), 333-338.

Rosenbaum, P. R., &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

Scriven, M. (1991). *Evaluation thesaurus*. Sage.

Vedung, E. (2009). **정책평가개론** [*Public policy and program evaluation*]. (이경옥 역). 서울: 한울. (원서출판 1997).

Leite, W. (2016). *Practical propensity score methods using R*. Sage Publications.

[신문기사]

부산일보. (2022.09.07.). 부산 중학교 80%, 내년 '자유학기제' 한 학기만 운영.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90711290344876에서 2022. 12. 08. 인출.

서울경제. (2021.05.06.). "적성 못 찾고 학력 격차만 커졌다"…자유학기제 실효성 논란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9630YL8 에서 2022.

12. 08. 인출.
에듀동아. (2018.02.23.). 올해부터 자유학년제 실시…교사들 “새 수업 기획할 시간이 부족해요”. http://edu.donga.com/?p=article&ps=view&at_no=20180223091702184765 에서 2022. 12. 08. 인출.
이투데이. (2020.02.26.). 전면 시행 앞둔 ‘자유학년제’…학부모 사교육비 부담느나. https://www.etoday.co.kr/news/view/1861885 에서 2022. 12. 08. 인출.
중앙신문. (2022.12.07.) [사설] 중1 자유학기제 시행 차질 없으려면.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58598 에서 2022. 12. 08. 인출.
한국교육신문. (2019.12.24.). 예산 반 토막, 자유학년제 제대로 운영될까.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0450에서 2022. 12. 07. 인출.
KBS. (2017.11.06.). “자유학년제 내년 시행”…학력 저하 우려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567583&ref=A 에서 2022. 12. 08. 인출.
SBS. (2021.10.06.). ‘자유학년제’ 1년 만에 폐지 검토?...일선 중학교 혼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88431&plink=ORI&cooper=NAVER 에서 2022. 12. 08. 인출

[웹사이트]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https://www.pen.go.kr/index.pen?menuCd=DOM_000000307001002000

Abstract

Study on the Effect of Free-year Program

- In Comparison with Free-semester Program -

Lina Kim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Free-year program by comparing it with the Free-semester program in South Korea.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between Free-semester program and Free-year program, causing substantial confusion in schools. It is important to draw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effects of the Free-year program and Free-semester program.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intended effects and the unintended effects

simultaneously based on the side-effects evaluation model.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effects of the Free-year program on th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creativity compared to the Free-semester program? Second, what are the effects of the Free-year program on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hadow education compared to the Free-semester program?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the Ordinary Least Square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es, using the Bus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BELS) dat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the Free-semester program, the effect of the Free-year program on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creativ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suggests that simply extend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to two semesters does not guarantee a positive effect.

Second, the Free-year program significantly affected negatively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Mathematics, and English compared to the Free-semester program. This finding supports the concern that students will underachiev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year program, suggesting that caution for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s more needed while implementing the Free-year program.

Third, the Free-year program significantly increased students' participation in shadow education compared to the Free-semester program. This suggests that trust in public education is decreasing and parents' anxiety is increasing. Overall, the positive effects intended by the Free-year program are not significant, while the negative effects which were not intended by the Free-year program are significant.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th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relieve the burden of teachers' work through material and human support. To achieve the policy's goal, it is required to provide good quality education, by solving problems such as lack of budget, overlapping experience centers, and lack of manpower, rather than relying on teachers' manpower.

Second, institutional efforts are needed to enhance process-fortified assessment and guarantee basic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support process-fortified assessment, which is a new evaluation method compared to traditional assessment. Based on the results, it is important to actively provide learning support for students who do not reach the achievement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for the Free-year program and Free-semester program. Based on the data-based studies, it is necessary to adopt an effective policy and operate it stably.

keywords : Free-year program, Free-semester program, propensity score matching, career maturity, creativity, academic achievement, shadow education

Student Number : 2021-21932